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

의안번호

제309호

제출연월일 : 2023. 3. 1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통상진흥과 공공외교, 투자유치 분야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점차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는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을 통한 수출 증진 및 지방외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 운영현황 : 14개 시.도(12개국, 60개 사무소 / 일본 8개소, 독일 2개소)
- 충청남도는 2021년 도정 사상 처음으로 수출액 1천억불(전국2위), 무역수지 흑자액 670억불(전국 1위) 달성에 이어 2022년 수출액 1,074억불로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수출강국의 위엄을 증명하였으나,
- 2023년 1월 충청남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39.6% 감소한 55억 달러를 기록, 2016년 1월 수출액 전국 2위 탈환 이후 7년만에 3위로 내려앉는 등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른 수출부진이 현실화 되며 돌파구 마련을 위한 해외사무소 설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됨.
- 더욱이, 수출기반이 빈약하고 무역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도내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해외진출 전략기지 또는 가이드 역할을 해줄 해외사무소의 설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충청남도는 현재 운영중인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에 이어, 도내 기업의 수요 충족과 유럽지역 외자유치를 위하여 2023년 일본·독일, 2024년 미국·중국 주요 4개국에 해외사무소를 설치코자 함.
- 이에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설치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운영 전반에 대하여 고견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방향

- (기능 다변화) 현행 통상진흥 기능에서 해외자본 투자유치 및 지방 공공외교 등 교류 기능까지 확대
 - (설치지역) 일본 도쿄, 독일 프랑크푸르트
 - (운영시기) 설치 동의안 통과 후 순차적 개소 추진
 - (운영방법) 도 직접 운영 원칙, 사무소 관리 등 출연기관 협조 체제
 - 도 공무원(5~6급) 소장 파견, 채용·운영·평가·감사 등 직접 관리
 - (운영목적) 탈중국 외국자본 유치 및 통상진흥 등을 위한 전략거점화
 - (설치규모) 사무소별 5명[소장 1, 현지직원 4(민간전문가 포함)]
 - (소요예산) 1,400백만원(도비 100%)
 - 당초 3개소 운영비 10억원 / 추가 2개소 설립 2억원, 운영 2억원
- ※ 2023년 해외사무소 운영 본예산 10억원 외 추경 4억원 반영 필요

나. 그동안 추진사항

- 도 해외사무소 추가설립 타당성 및 추진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 2022. 10. 1. ~ 2022. 12. 25.
- 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도지사 결재) : 2023. 2. 28.

다. 향후 추진계획

- 해외사무소 설치 도의회 동의안 제출 : 제343회 임시회(3월)
- 해외사무소 설치 추경 예산 제출 : 제344회 임시회(4월)
- 해외사무소장 선발·파견 및 개소 준비 : 동의안 통과 즉시 추진

3. 참고자료

- 관련법규
 -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7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95조
-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계획서
- 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계획
- 도 해외사무소 추가설립 타당성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 보고서(요약)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운영기간 : 2023년 5월 이후

2. 운영개요

- (설치지역) 일본 도쿄, 독일 프랑크푸르트
- (운영시기) 2023년 5월 이후
- (운영방법) 도 직접 운영 원칙, 사무소 관리 등 출연기관 협조 체제
- (운영규모) 사무소별 5명 수준(소장 1, 현지직원 4)
- (주요기능)
 - 도내 중소 수출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통상진흥 전반
 - 해외자본 투자유치 및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 그 외 도에서 추진코자 하는 국제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 소요예산 : 연간 14억원 (도비 100%)

- 당초 3개소 운영비 10억원 / 추가 2개소 설립 2억원, 운영 2억원

※ 2023년 해외사무소 운영 본예산 10억원 외 추경 4억원 반영 필요

관련법규 발췌

□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4504호 2019.5.30. 제정]

제3장 해외통상사무소

제11조(기능) 해외통상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충청남도 내 수출상품의 전시·홍보, 수출상담 지원
2. 해외마케팅 사업 지원 및 해외 판로망 개척·관리
3. 통상동향, 산업기술, 투자유치 등 정보수집·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설치지역) 해외통상사무소는 충청남도의 국제자매결연 자치단체 및 그 밖의 외국 주요 도시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설치절차) 도지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 미리 충청남도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설치·운영) ① 도지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경제통상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따른 세부적 사항은 도지사와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해외사무소 위탁기관의 운영성과를 2년마다 평가하며,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5조(대행사업비 지급) 제14조에 따라 해외통상사무소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추진상황 및 정산 보고) ① 수탁기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을 매분기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사업종료후 1개월이내 정산 및 추진성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과 이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근무자 파견 등) ① 도지사는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외 현지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외사무소에 파견될 자의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

□ 지방자치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5조(해외사무소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사무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인건비, 운영비(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등)
- (관련조문)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7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초기 운영기간(2023~2025) 동안 출연금 총 5,100백만원 지원
- 타 지자체 운영예산 및 현지물가 등을 감안하여 2023년부터 인건비 및 운영비 1,200백만원, 임차비 등 설치비 200백만원 확보
- 2023년 운영비는 현재 운영중인 동남아 3개국 운영비 및 2개국 설치에 따른 추가 운영비용 포함

나. 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출연금	계	5,100	1,400	1,700	2,000
	설치비	400	200	200	
	운영비	4,700	1,200	1,500	2,000

다. 재원조달방안(출연금)

- 출연금(3년간 5,100백만원) : 전액 도비 확보

3. 작성자 :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외수입					
세 출		1,400,000	1,700,000	2,000,000	5,100,000
출연금(도비)		1,400,000	1,700,000	2,000,000	5,100,000
재원 조달		1,400,000	1,700,000	2,000,000	5,1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1,400,000	1,700,000	2,000,000	5,10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계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1,400,000	1,700,000	2,000,000	5,10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출연금(3년간 5,100,000천원) : 전액 도비 확보

3. 협조사항

○ 2023년 제1회 추경, 2024년도 이후 본예산 도비 예산 반영

4. 작성자 :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참고> 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계획 방침결재

저장 : 우장훈 / 투자통상정책관 (2023-03-01 13:08:47)

등록번호	투자통상정책관 -1340
등록일자	2023. 2. 28.
결재일자	2023. 2. 28.
공개구분	부분공개(5)

주무관	통상지원팀장	투자통상정책관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	도지사
우 장 훈	임 민 호	윤 주 영	전 형 식	김 기 영	김 태 흥
협조자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외자유치팀장	신두철	예산담당관	도종선	
	기업유치팀장	윤여근	인사담당관	강관식	
	국제협력팀장	손영일	자치행정과장	이동유	
	국제교류팀장	성용현	예산총괄팀장	이재훈	
	주무관	육소현	인사팀장	유재천	
	주무관	송서율	조직관리팀장	노상권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

2023. 2.

팀 장 : 행정5급 임민호 (☎ 3344)

담당자 : 행정6급 우장훈 (☎ 3361)

[도정과제 '실무과제'중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지원서비스 확대"와 연계]

도 투자유치·통상진흥 및 지방외교 활성화 등을 위한 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계획

< 결 제 개 요 >

- (대 상 국) 7개소 체제(일본·독일·미국·중국·베트남·인도·인니)
- (운영목적) 투자유치, 통상진흥, 지방외교 등 다목적 추구
- (기본방향) 일본·독일·미국·중국 해외사무소 순차적 설치
기존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사무소 운영체제 개선
- (향후계획) 2023년 3월 도의회 임시회 설치동의안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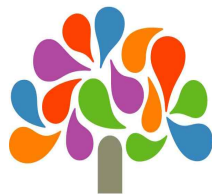


충 청 남 도
(투자통상정책관)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계획

< 결재 개요 >

- (대 상 국) 7개소 체제(일본·독일·미국·중국·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 (운영목적) 투자유치, 통상진흥, 지방외교 등 다목적 추구
- (기본방향) 일본·독일·미국·중국 해외사무소 순차적 설치
기존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사무소 운영체제 개선
- (향후계획) 2023년 3월 도의회 임시회 설치동의안 제출



충 청 남 도

(투자통상정책관)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계획

❖ 투자유치·통상진흥 및 지방외교 교류 활성화 등 최선의 효과 성취를 위한 우리 도 해외사무소 운영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1 설치근거 및 기본방향

① 설치근거

- (법규) 대외무역법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 (조례)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장(해외통상사무소)
- (용역) 도 해외사무소 추가설립 타당성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22.10.1.~12.25.)
 - 도내 420여개 중소기업 대상 해외사무소 필요성 및 설치국가(도시) 조사

- ① (필요성) 필요(75%) > 필요하며 단계적 확대(24.1%) > 필요없음(1.25%)
- ② (설치국가) 미국(18.5%) > 중국(14.6%) > 서유럽(10.8%) > 일본(10.6%)
 - 설치도시 : 미국(LA), 중국(상하이), 일본(도쿄), 독일(프랑크푸르트)

② 기본방향

- (기능 다변화) 현행 통상기능에서 투자유치 및 지역 교류 기능 추가
- (설치국가) 7개소 운영(신설 4 일본·독일·미국·중국 / 유지 3 베트남·인도·인니)
 - 기업의 높은 해외사무소 이용 수요 및 충청남도 주요 통상국인 중국(1위), 미국(3위), 일본(7위)과 서유럽 최대 외자유치 국가인 독일 지역 신설
 - 현행 베트남(2위), 인도(8위), 인도네시아(17위) 사무소는 운영 유지하며 기타 동남아시아 지역 전반을 아우르는 거점으로서의 역할 확대
- (도 직접운영) 5~6급 도 공무원 소장 파견, 채용·평가·운영 직접 관리
 - 現 투자통상정책관 성과평가 주요과제 반영 및 도 감사기능 추가

※ 기존 사무소 : 민간인 소장 → 도 공무원 소장 파견(7월말 변경)



2 신규 설치 계획

개요

- (설치대상) 일본 도쿄, 독일 프랑크푸르트, 미국 LA, 중국 상해
- (운영주체) 도 직접 운영 원칙, 사무소 관리 등 출연기관 협조 체제
- (운영목적) 탈중국 외국인자본 유치 및 통상진흥 등을 위한 전략거점화
- (설치형태) KOTRA 무역관 인근 개별 사무소(원루프 입주 적극 추진)
- (설치규모) 사무소별 5명[소장(도 공무원 5~6급)1, 현지직원(민간전문가 포함)4]
- (설치흐름) 2023년(일본, 독일) → 2024년(미국, 중국)

□ 2023년(일본, 독일)

① 일본(도쿄 / 상반기) : 해외 사무소 설치 희망국가 조사 3위(10.8%)

진출 여건	○ (시장여건) GDP 세계3위, 아시아 유일 G7, 해외 순자산 세계 1위 ○ (수출여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출범으로 교역 확대 예상 ○ (대외투자) 코로나 약세에 따른 일본자본의 對한국투자 증가 추세 ○ (공공외교) 구마모토·나라시즈오카현 등 우호 지방정부와의 교류 활성화
주요 공략 분야	○ (디지털전환) 제조·물류스마트화 시장 및 교육·금융·쇼핑 등 제반분야 ○ (탈탄소) 신재생에너지 탈탄소 시장 진입 및 차세대 자동차시장 진입 ○ (공급망) 경제안보 강화 및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기회 선점 ○ (新한류) K-콘텐츠 기반 식품·소비재 시장 및 확대되는 레저시장 진출
그외	○ (타 시·도 운영) 일본 8개소 운영(도쿄 6, 오사카 2) ○ (운영연혁) 구마모토 연락관 운영(1998.1 ~ 2016.12) ○ (관련행사) 시즈오카현 우호교류 체결 10주년, 대백제전·금산인삼축제 홍보 프로모션 등

② 독일(프랑크푸르트 / 10월중) : 유럽 외자유치 거점, KOTRA 유럽본부 소재

진출 여건	○ (시장여건) 유럽연합(EU)의 사실상 리더이자, 유럽 최대 경제규모 ○ (수출여건) 우리도 기업 진출이 용이한 대외 개방형 경제구조 ○ (대외투자) 최근 對한국투자 대폭 확대 양상, 우리도 유치 가능성 높음 ※ 지난10년(2014~2022년), 유럽지역 외자유치 40건중(13개국가) 11건 최다
주요 공략 분야	○ (에너지위기) 에너지 절감 제품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진출 ○ (이커머스) 한류 열풍 활용, 유럽 소비재 전자상거래 플랫폼 진출 ○ (이모빌리티) 전기차 300만 시대, 성장하는 이모빌리티 시장 선점
그외	○ (타 시·도 운영) 유럽 5(독일 프랑크푸르트 2, 러시아 3) ○ (관련행사)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공연 등

□ 2024년(미국, 중국)

③ 미국(LA / '24.1월중) : 해외 사무소 설치희망국가 조사 1위(18.5%)

진출 여건	○ (시장여건) 캘리포니아주 GDP 3.4조 달러(한국의 1.9배), 미국 전체 1위 ○ (수출여건) 한국의 對미국 수출이 수입의 2배로 무역수지 흑자 ○ (비즈니스) LA 연 방문객 약 5천만명, 글로벌 마케팅 기회 가능성
주요 공략 분야	○ (제조업) 반도체 산업 육성 대규모 투자 활용, 바이오산업 진입 ○ (첨단산업) 차세대 자동차 고부가가치 전장 부품 및 차량용 소프트웨어 ○ (서비스) 엔데믹에 따른 소비수요 성장에 따른 서비스 산업 공략
그외	○ (타 시·도 운영) 미국 6(LA 5, 실리콘밸리 1) ○ (운영연혁) 미국 LA통상사무소(2008.1 ~ 2016.12)

④ 중국(상하이 / '24년) : 해외 사무소 설치희망국가 조사 2위(14.6%)

진출 여건	○ (시장여건) 중국의 대외개방 창구(중국 수출입 총액의 45.4% 차지) ○ (수출여건) 우리도 수출국 1위이며, 코로나19 방역통제 완화 추세 ○ (공공외교) 허베이·헤이룽장 등 6개 우호 지방정부와의 교류 활성화
주요 공략 분야	○ (소비재) 중국 신소비트렌드 변화, 디지털화에 맞춰 내수시장 공략 강화 ○ (글로벌공급망) 중국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한중 GVC 재편 참여 ○ (그린산업) 탄소중립정책·ESG 활용한 중국 그린산업 시장 진출 확대
그외	○ (타 시·도 운영) 중국 20(상해 10, 그 외 10) ○ (운영연혁) 중국 상해무역관(1999.12 ~ 2016.12)



3 현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개선

개요

- (기본방향) 도 기업의 수출외연 확장을 위한 동남아 진출 전략거점화
- (운영국가)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사무소 운영체제 개선
- (운영형태) 현사무소 유지(임차 계약기한 미도래), 향후 원루프 입주 추진
- (운영주체) 도 직접 운영 원칙, 사무소 관리 등 경제진흥원 협조 체제

□ 운영 유지 필요성

- (베트남) 우리도 수출 대상국 1~2위 및 우호 지방정부와의 교류 활성화
- (인 도) 인구규모 최대 시장 및 무궁무진한 산업발전 잠재력 보유
- (인도네시아) 세계인구 4위(2억7천만), 무궁무진한 산업발전 잠재력 및 천연자원 대량 보유, 동남아 이슬람권 선도국가

□ 운영 개선방안

- (개선방향) 도 직접 운영 원칙, 사무소 관리 등 경제진흥원 협조 체제
 - 운영형태 : 현사무소 유지(임차 계약기한 미도래), 향후 원루프 입주 추진
 - 구성인원 : 5명(도 공무원(소장)1, 현지직원 4)
- (주요내용) 도 공무원 선발 해외사무소 파견 및 KOTRA 협업체계 구축

□ 앞으로 계획

- (공통) 해외사무소장(도 공무원) 선발(4월) 및 파견 추진(7월)
- (역할확대) 필리핀·태국·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 전반을 아우르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 및 역할 확대



소요 예산

☐ 총 괄

(단위 : 백만원)

2023년 본예산	소요예산			비고
	소계(a+b)	설치비(a)	운영비(b)	
1,000	1,400	200	1,200	추경 4억원 반영 필요

☐ 운영비

(단위 : 백만원)

구분	국가	내용	
계			1,400
설치비	합계		200
	일본독일	소계	200
		임차 보증금(2개소)	90
		법인 설립비용	50
		기타 설치비용	60
운영비	합계		1,200
	베트남 (하노이)	소계	210
		임차료	70
		인건비	120
		운영비	20
	인도 (뉴델리)	소계	230
		임차료	80
		인건비	130
		운영비	2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계	220
		임차료	80
		인건비	120
		운영비	20
	일본 (도쿄)	소계	220
		임차료	110
		인건비(현지직원)	80
		운영비	30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계	220
		임차료	90
		인건비(현지직원)	90
		운영비	40
	진흥원	소계	100
		인건비	90
		운영비	10

5

향후 추진일정

구분	주요 내용	일정
1/4 분기	■ 해외사무소 추가설립 계획 방침결재	2월 중
	■ 해외사무소 추가설립 동의안 의회 제출	3월 중
2/4 분기	■ 해외사무소장(도 공무원) 모집 공고 및 선발	4월
	■ 해외사무소 추가설립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제출	5월
	■ 일본 해외사무소장 파견	5월
	■ 해외사무소 임차 및 법인등록 등 제반사항 준비	5월
	■ 도 지휘부 일본 순방(일본 도쿄 해외사무소 방문 포함)	5월
3/4 분기	■ 독일 및 동남아 3개국 해외사무소장 파견	7월
4/4 분기	■ 도 지휘부 독일 투자유치 설명회(독일사무소 개소식 포함)	10월
	■ 해외사무소(미국 LA) 추가설립 동의안 의회 제출	10월
2024년	■ 미국 LA 사무소 및 중국 상하이 사무소 개소 추진	1월

6

행정사항

○ (투자통상정책관)

- ◆ 해외사무소 추가설립 추진 총괄 및 제반사항 준비

○ (인사담당관·자치행정과)

- ◆ 해외사무소장(도 공무원) 모집·선발 및 결원보충 등 파견 절차 협조
- ※ 일본 5월 중 파견 / 독일·동남아 3국 7월 중 파견 / 미국 12월 중 선발

○ (예산담당관)

- ◆ 추가설치 및 운영비 증가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4억원) 반영

○ (충남경제진흥원)

- ◆ 해외사무소 법인 등록 등 추가설립 전반 및 운영 협조

□ **용역개요**

- 용역명 :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설립 타당성 및 추진방향 연구
 - 용역기간 : 2022. 10. 1. ~ 12. 25.
 - 수행/사업비 : (사)한국정책학회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 주요내용 : 道 주요수출국 현황 및 도내기업 수요조사 분석
- ※ 충남 해외사무소 신규설치 타당성 관련 설문조사 수행(2022.10.21.~11.7./도내 420여개 기업)

□ **용역결과**

① **해외사무소 설치 필요성**

- 주요기능 : 기업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 외자유치, 관광객 유치, 국제협력
- 필요성 : 도내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지원과 전담인력 희망

〈 해외사무소 신규설치 타당성 관련설문조사 결과〉

- (활용이유) 도내기업 밀착지원 35.6%, 공신력 26.5%, 비용절약 22.3%
- (만족도) 매우높음44.4%, 높음40%, 보통12%, 낮음3%, 매우낮음0.6%
- (필요성) **필요하다 74.7%**, 단계적확대 필요 24.1%, 필요하지 않다 1.2%

② **국가별·도시별 선정사유**

○ 도내기업 수요조사 결과, 중국>미국>일본>동남아(기설치)>유럽>중동 순 선호

- **일본** : GDP 세계3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로 **교역 확대 예상**
(도쿄) : 기업중심 경제도시(외국기업76% 소재), 국가전략특구(규제완화) 지정
- **유럽-독일** : GDP 세계4위(유럽 최대), 우리도 투자유치 **유럽지역 1위**(10년간, 11건)
(프랑크푸르트) : 코트라 유럽본부 소재, 교통 용이(직항 등), 박람회 다수개최로 시장개척 용이
- **미국** : GDP 세계1위, 충남 수출3위, 국내기업 다수진출로 도내기업 전인기대
(LA) : 과거 사무소 운영경험 보유(복원), 미국 내 GDP 및 기업수 1위
- 중국** : 충남 수출1위, 탈중국 외국자본 유턴 정보 획득 가능성 등

붙임2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현황

I

사무소 개요

- (설치지역) 3개소(베트남 하노이, 인도 뉴델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운영방식)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위탁, 민간전문가(소장) 임용 운용
- (소요예산) 956백만원
- (주요기능) 도내 수출중소기업 해외현지 통상분야 집중 지원,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매칭, 수출상담, 현지네트워크 구축 등

II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총합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3,494,200	220,000	556,000	762,200	956,000	1,000,000
충남해외통상사무소운영	3,344,200	220,000	556,000	612,200	956,000	1,000,000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150,000	-	-	150,000	-	-

III

운영 실적

(단위 : 천\$)

구분	항목	합계	2020	2021	2022
1	상담액	68,517	3,090	11,337	58,611
2	수출액	6,710	696	1,053	4,985
3	수출계약지원	528개사	54개사	119개사	411개사
4	수출애로지원	610개사	120개사	226개사	275개사
5	유망바이어발굴	678개사	143개사	265개사	287개사

※ 수출액 기준 2020년 대비 7배 이상 상승

연도	구 분	합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2020	상담액	US \$3,090,800(37억)	US \$2,291,000	US \$799,800	-
	수출진행액	US \$1,680,100(20억)	US \$1,195,000	US \$485,100	-
	수출액	US \$696,092(8억)	US \$271,943	US \$424,149	-
	수출계약지원	54개사(130건)	24개사(57건)	30개사(73건)	-
	수출애로지원	120개사	54개사	66개사	-
	유망바이어발굴	143개사	83개사	60개사	-
2021	상담액	US \$11,336,800(136억)	US \$6,632,800	US \$4,559,000	US \$145,000
	수출진행액	US \$8,089,500(97억)	US \$5,368,000	US \$2,677,500	US \$44,000
	수출액	US \$1,052,858(12억)	US \$540,077	US \$507,873	US \$4,908
	수출계약지원	119개사(260건)	52개사(116건)	64개사(139건)	3개사(5건)
	수출애로지원	226개사	119개사	76개사	31개사
	유망바이어발굴	265개사	137개사	117개사	11개사
2022년	상담액	\$58,611,000	\$22,530,000	\$5,651,000	\$30,430,000
	수출진행액	\$41,995,000	\$19,095,000	\$2,887,000	\$20,013,000
	수출액	\$4,985,000	\$909,000	\$2,054,800	\$2,023,000
	수출계약지원	411개사	127개사	141개사	143개사
	수출애로지원	287개사	104개사	113개사	70개사
	유망바이어발굴	275개사	72개사	93개사	110개사

※ 2022년 실적 원화환산시) 1,400원 적용, 억단위 이하 반올림 적용

전국 지자체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22년말 기준)

자치단체	국가(도시)	설치시기	근무인원			운영형태	2022 예산	
			파견공무원	현직직원				
14개 시도 / 12개국, 60개 해외사무소 (자체운영 8, 위탁운영 43, KOTRA파견 9) ※ 폐쇄 : 서울·울산('11년) / 미설치 : 세종								
부산 (5)	미국(LA)394	'96.04.18.	5급	1	3	위탁운영 (경제진흥원)	1,390	
	일본(오사카)307	'96.07.01.	5급	1	2	위탁운영 (경제진흥원)		
	중국(칭다오)247	'16.07.15.	-	-	3 (진흥원1)	위탁운영 (경제진흥원)		
	중국(상하이)300	'97.07.08.	5급	1	2	상공회의소 위탁		
	베트남(호치민)142	'08.08.01.	5급	1	2	KOTRA 파견		
인천 (1)	중국(웨이하이)	'16.11.01.	5급 6급	2	2	자체 운영 (상공회의소중국사무소)	538	
대구 (3)	중국(상하이)	'13.01.05.	5급	1	2	위탁운영 (대구컨벤션뷰로)	535	
	베트남(호치민)	'16.08.11.	5급	1	2	위탁운영 (대구컨벤션뷰로)		
	인도네시아(자카르타)	'19.06.10.	6급	1	2	위탁운영 (대구컨벤션뷰로)		
광주 (3)	일본(도쿄)	'03.04.01.	6급	1	-	KOTRA 파견	610	
	미국(실리콘밸리)	'11.02.01.	6급	1	-	KOTRA 파견		
	중국(상하이)	'17.10.21.	6급	1	2	자체 운영		
대전 (5)	중국(선양)	'03.12.01.	-	-	1	위탁운영 (대전경제진흥원)	948	
	중국(난징)	'04.09.01.	-	-	1	위탁운영 (대전경제진흥원)		
	베트남(호치민)	'17.06.01.	-	-	1	위탁운영 (대전경제진흥원)		
	베트남(빈증) ※지소		-	-	1	위탁운영 (대전경제진흥원)		
	일본(도쿄)	'09.07.01.	-	-	1	위탁운영 (대전경제진흥원)		
경기 (14)	인도(뭄바이)	'05.01.15	-	-	5	위탁운영 (경제과학진흥원)	4,000	
	러시아(모스크바)	'06.04.24	-	-	4			
	말레이시아(KL)	'08.08.22	-	-	4			
	미국(LA)	'09.09.01	-	-	5			
	중국(상해)	'10.03.29	-	-	6			
	중국(심양)	'11.09.22	-	-	4			
	중국(광저우)	'16.03.31	-	-	4			
	중국(충칭)	'17.05.01	-	-	4			
	베트남(호치민)	'16.04.01	-	-	5	위탁운영 (경기도주식회사)		
	베트남(하노이)	'20.3월	-	-	4			
	이란(테헤란)	'17.05.01	-	-	5	위탁운영 (경제과학진흥원)		
	케냐(나이로비)	'18.3.29	-	-	1			
	태국(방콕)	'20.3월	-	-	4	위탁운영 (경기도주식회사)		
	중국(연변)	'20.3월	-	-	4			

자치 단체	국가명(도시명)	설치시기	근무인원(명)			운영형태	2022 예산
			파견공무원		현지채용		
강원 (5)	러시아(블라디보스톡)	'11.04.11	6급	1	2	KOTRA 파견 (경제진흥원 위탁)	1,100
	중국(베이징)	'15.09.16	5급 6급	1 1	2	위탁운영 (경제진흥원)	
	중국(지린) ※지소	'95.03.09	-	-	1	위탁운영 (경제진흥원)	
	일본(도쿄)	'16.03.01	5급	1	1	위탁운영 (경제진흥원)	
	베트남(호치민)	'17.06.09	5급	1	1	위탁운영 (경제진흥원)	
충북 (1)	중국(상하이)	'15.01.28.	5급	1	3	위탁운영 (충북기업진흥원)	452
충남 (3)	베트남(하노이)	'20.01.20.	-	-	3	위탁운영 (충남경제진흥원)	956
	인도(뉴델리)	'20.02.17.	-	-	3	위탁운영 (충남경제진흥원)	
	인도네시아(자카르타)	'21.07.01.	-	-	3	위탁운영 (충남경제진흥원)	
전북 (1)	중국(상하이)	'03.04.17.	5급 6급	2	3	위탁운영 (전북경제통상진흥원)	487
전남 (5)	중국(상해)	'03.04.25	5급	1	4	자체 운영 (경제진흥원중국사무소)	1,813 (KOTRA 연도말 분담료 부과)
	일본(오사카)	'03.05.28	5급	1	2	자체 운영 (전남일본사무소)	
	미국(LA)	'03.12.10	5급	1	2	KOTRA 파견	
	독일(프랑크푸르트)	'12.06.15	임기제5	1	2	위탁운영 (전남경제진흥원)	
	베트남(호치민)	'19.08	5급	1	2	자체 운영 (경제진흥원베트남사무소)	
경북 (6)	미국(LA)	'06.01.10.	5급	1	-	KOTRA 파견	1,863 (KOTRA 연도말 분담료 부과)
	중국(상하이)	'15.08.01.	5급	1	1	위탁운영 (경북경제진흥원)	
	일본(도쿄)	'15.08.01.	5급	1	-	KOTRA 파견	
	인도네시아(자카르타)	'15.08.01.	5급	1	2	위탁운영 (경북통상)	
	베트남(호치민)	'17.01.23.	5급	1	2	위탁운영 (경북경제진흥원)	
	러시아(연해주)	'19.09.01.	-	-	1	위탁운영 (경북경제진흥원)	
경남 (6)	중국(산둥)	'99.07.12	6급	1	2	위탁운영 (경남무역)	1,250
	중국(상하이)	'03.04.01	6급	1	2	위탁운영 (경남무역)	
	미국(LA)	'08.03.21	5급	1	2	KOTRA 파견 (경남무역 위탁)	
	일본(도쿄)	'09.10.15	5급	1	2	자체 운영 (경남무역)	
	인도네시아(자카르타)	'12.05.01	5급	1	2	KOTRA 파견 (경남무역 위탁)	
	베트남(호치민)	'13.11.20	6급	1	2	KOTRA 파견 (경남무역 위탁)	
제주 (2)	중국(상하이)	'15.08.17.	-	-	4	위탁운영 (경제통상진흥원)	956
	일본(도쿄)	'17.08.23.	-	-	3	위탁운영 (경제통상진흥원)	

※ 해외사무소 폐쇄 - 서울시 : 2002년 말(미국 뉴욕·LA,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제3장 해외통상사무소**

제11조(기능) 해외통상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충청남도 내 수출상품의 전시·홍보, 수출상담 지원
2. 해외마케팅 사업 지원 및 해외 판로망 개척·관리
3. 통상동향, 산업기술, 투자유치 등 정보수집·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설치지역) 해외통상사무소는 충청남도의 국제자매결연 자치단체 및 그 밖의 외국 주요 도시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설치절차) 도지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 미리 충청남도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설치·운영) ① 도지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경제통상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 ② 위탁에 따른 세부적 사항은 도지사와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③ 도지사는 해외사무소 위탁기관의 운영성과를 2년마다 평가하며,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5조(대행사업비 지급) 제14조에 따라 해외통상사무소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추진상황 및 정산 보고) ① 수탁기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을 매분기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 및 추진성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과 이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근무자 파견 등) ① 도지사는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외 현지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② 해외사무소에 파견될 자의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4.1.>

참고2

타지자체 해외사무소 파견공무원 공모방식 현황

< 주요내용 >

- 응시자격 : **[경력] 실근무 3년 이상, 통상분야 경험자 우대**
/ [언어] 현지 언어구사, 적격자 없을 경우 영어소통 가능자
- 선발절차 : **공모 → 서류심사 → 면접 → 선발**
 ※ 기타 : 필기시험 소관부서 추천방식 심사위원회 구성 시기 등 상이
- 파견형식 : **소관부서 소속 및 파견, 소관부서에서 파견공무원 수당 등 관리**

시도	운영국가	응시자격	선발절차	파견형식
부산	미국(LA) 일본(오사카) 중국(상해) 베트남(호치민)	- 만53세 이하 - 현지언어 구사 (어학성적 보유자) - 통상업무 경력자 우대	공모→필기시험 및 면접→적격자 추천(소관부서)→인사부서 선발→파견대상자 교육 및 파견	외교통상과 소속
인천	중국(웨이하이)	- 현지언어 구사 (어학성적 보유자) - 실근무 3년 이상	공모→서류심사→평가위원 구성→면접→조례규칙심의→선정→ 파견	국제평화협력 담당관 소속
광주	일본(도쿄) 미국(실리콘밸리) 중국(상해)	- 55세 이하 - 현지언어 구사 (어학성적 보유자)	공모→서류심사→심사위원회 구성→면접→선발자 파견	투자산단과 소속
강원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중국(베이징) 일본(도쿄) 베트남(호치민)	- 실근무 3년 이상 - 통상분야 업무 경험자 - 현지언어 구사 (어학성적 보유자)	공모→서류심사→심사위원회 구성→면접→선발자 파견	국제통상과 소속
충북	중국(상해)	- 현지언어 소통가능자 - 통상분야 업무 능력 우수자	공모→서류심사(결격여부 조회)→면접→선발심사위원회 심사→선발→파견	국제통상과 소속
전북	중국(상해)	- 57세 이하 - 실근무 3년 이상 - 현지언어 또는 영어소통 가능자 (자격증 소지자 우대)	공모→서류심사→심사위원회 구성→면접→선발자 파견	대외협력과 소속
경남	중국(산둥,상해) 미국(LA) 일본(동경)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베트남(호치민)	- 현지언어 또는 영어소통 가능자(어학성적 보유자)	공모→서류심사→심사위원회 구성→면접→선발자 파견	국제통상과 소속

□ 道 장기 국외훈련 공무원 선발요건

○ 근무경력 : 만 50세 이하, 실근무경력 5년 이상, 도청 근무경력 3년 이상

일반과정 (학위과정)	영 어 권	TOEFL 560점(CBT 220점, IBT 83점), 영국문화원 IELTS 6.0점, G-Telp(LevelⅡ) 77점, TOEIC 775점, 뉴텡스 350점 이상 * 훈련예정 국가(기관)에서 요구하는 어학검정 종류·점수만 인정
	비영어권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5점 이상, 중국어 신HSK 5급 240점 이상, 일본어 JLPT N2 140점 이상
직무과정 (현장형/연계형/연구형)	영 어 권	TOEFL 530점(CBT 197점, IBT 75점),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학교·LATT 어학검정 60점, 영국문화원 IELTS 5.5점, G-Telp(LevelⅡ) 70점, TOEIC 730 점, 뉴텡스 350점 이상
	비영어권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0점 이상, 중국어 신HSK 5급 180점 이상, 일본어 JLPT N2 100점 이상

참고. 어학성적 기준 비교

언어	KDI (국제정책대학원)	장기 국외훈련 (학위과정 기준)	타 지자체 성적기준	평균
영어	- TOEFL 530점 (CBT197점,IBT75점) - IELTS 5.5점 - TOEIC 675점 - 뉴텡스 380점	- TOEFL 560점 (CBT220점,IBT83점) - IELTS 6.0점 - TOEIC 775점 - 뉴텡스 350점 - G-Telp(LevelⅡ) 77점	(광주) - TOEFL 567점(CBT 227점, IBT 86점) - TOEIC 790점, TEPS 700점 이상 -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 어학검정 70점 이상 - 1년 이상 국외훈련 및 근무경력 있는자 면제 (경남) - TOEFL 400점(CBT 180점, IBT 72점) - TOEIC 594점, 뉴텡스 350점 이상	- TOEFL 550점 - IELTS 5.5점 - TOEIC 700점 - 뉴텡스 350점
중국어		-중국어 신HSK 5급 (240점) 이상	(인천) HSK 4급 이상 (경남) HSK 4급 이상 (광주) - HSK 5급(180점)이상 -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 어학검정 60점 이상 - 국외훈련 및 근무경력 있는자 면제	- HSK 4~5급
일본어	(영어만 해당)	-일본어 JLPT N2 (140점) 이상	(부산) -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 어학검정 60점 이상 - JPT 600점 이상 - JLPT N2 이상	- JPT 600점 이상
기타 외국어 (베트남 등)		- 서울대·한국외대· 부산외대 어학검정 65점 이상	(경남) - FLEX 600점 - 서울대·한국외대·부산외대 어학검정 60점 이상	- FLEX 600점 - 서울대· 한국외대· 부산외대 어학검정 60점 이상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 외국어능력시험 / 한국외대 개발, 대한상공회의소 시행

<참고> 도 해외사무소 추가설치 타당성 추진방향 연구용역 보고서



2022년 충남 해외통상사무소
추가설립 타당성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요약본)

2022. 12.



충청남도경제진흥원
Chungcheongnam-do Economic Promotion Agency

목 차

1. 제1장 서론
2. 제2장 지자체 및 수출유관 기관 해외사무소 현황
3. 제3장 충청남도 해외통상현황 및 운영실적
4. 제4장 도내 기업 수요분석 설문조사
5. 제5장 충남 해외통상사무소 설치대상 국가 분석
 - 제1절 설치대상 국가 타당성 분석 절차
 - 제2절 설치대상 우선순위 국가 선정
 - 제3절 신규 설치대상 국가 선정
6. 제6장 신규 설치대상 분석 및 운영 계획
 - 제1절 신규 설치대상 지역 심층 분석(환경 호의성 분석) 프레임
 - 제2절 신규 설치대상 지역 심층 분석
 - 제3절 신규 설치대상 국가 및 지역별 진출전략
 - 제4절 해외사무소 신설의 기대 효과
7. 제7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제 출범이후 국제통상, 국제외교 및 교류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 국제통상, 해외투자유치 및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충청남도는 2021년 수출 1천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무역수지 흑자액 668억불로 전국 시도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음
- 현재 충남은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3개국에 해외사무소가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계약지원, 바이어발굴, 해외투자 유치, 교류 증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최근 민선 8기를 맞이하여 신임 지사는 충남 발전의 도약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과 아세안 지역에 해외사무소를 추가 설치하여 충남의 수출을 선도하는 광역자치단체로 부상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할 것을 정책공약으로 천명하였음



- 본 연구는 민선 8기 도지사의 정책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충남도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에 있어서 최대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충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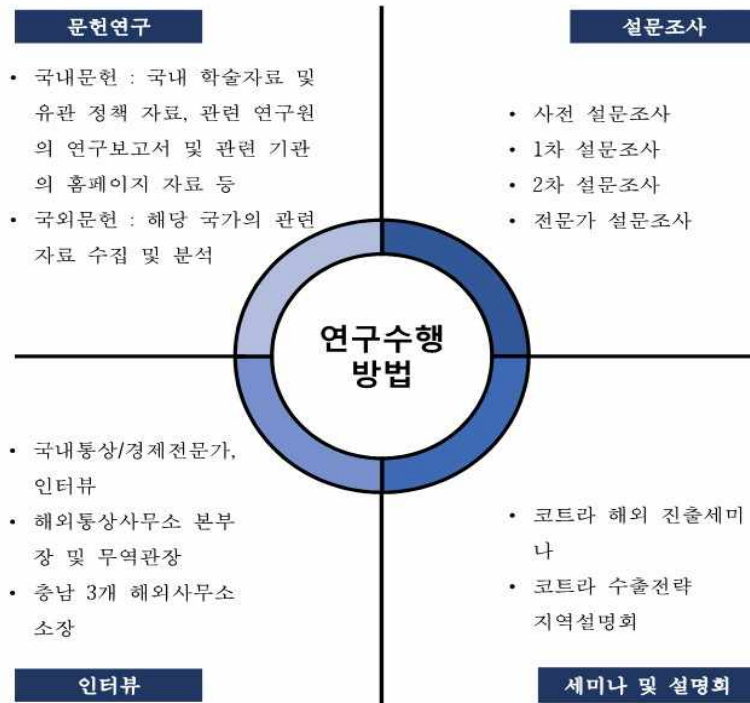
1

2. 연구내용

- ① 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현황 분석
- ② 충남도 해외사무소 운영현황 및 성과점검
- ③ 충남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사무소 설치에 대한 수요조사 및 분석
- ④ 충남 해외사무소 설치에 대한 전문가/실무자 인터뷰
- ⑤ 해외사무소 설치대상 국가 선정 및 정치 경제 현황 분석
- ⑥ 해외사무소 운영방안 모색 등

2

3. 연구방법



3

제2장 지자체 및 수출유관 기관 해외사무소 현황

1. 지자체 해외사무소 운영의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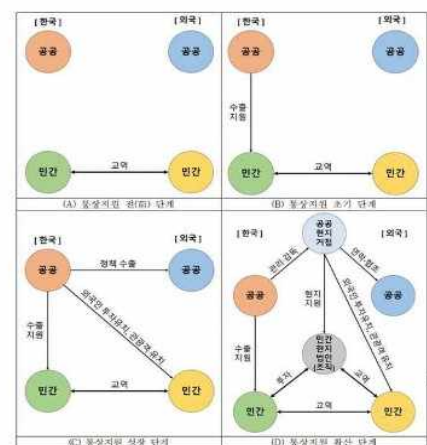
○ 2020년 12월 9일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조항이 신설됨.

- 제195조(해외사무소 설치·운영)

-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사무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2. 지자체 해외사무소 발전단계

- 지자체 해외사무소의 통상 지원 발전 단계는 통상지원 전(前) 단계 (A) - 통상지원 초기 단계(B) - 통상지원 성장 단계(C) - 통상지원 확산 단계(D) 등으로 구분되어 발전 단계를 살펴볼 수 있음.



4

3. 지자체 해외사무소 운영의 유형 및 유형 사례

〈표 2-1〉 해외사무소 운영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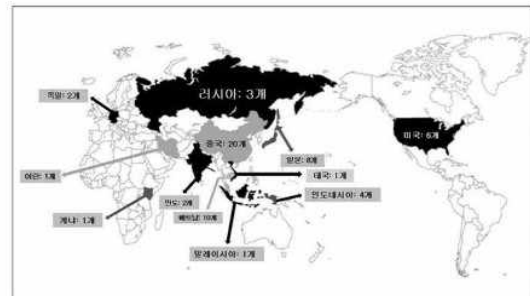
구분	직접 운영	간접 운영		코트라 파견
		A형	B형	
운영의 주체	지자체	위탁운영기관 (산하기관 등)		코트라
책임 운영인력	파견 공무원	파견 공무원	전문인력 채용	파견 공무원

〈표 2-2〉 해외사무소 운영유형 사례

구분	직접 운영	간접 운영		코트라 파견	복합 운영
		A형	B형		
책임 운영인력	파견 공무원	파견 공무원	전문인력 채용	파견 공무원	파견 공무원, 전문인력 채용
예산 운영	직접	간접	간접	간접	직접, 간접
사례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인천시 광주시 전남도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경북도 제주도	부산시 경기도 충남도 경북도	광주시 강원도 경남도

4. 지자체 해외사무소 운영 지역

- 현재 14개 지자체에서 총 59개소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권역을 분석한 결과 중남미 권역을 제외한 북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 주요 지역에 해외사무소를 운영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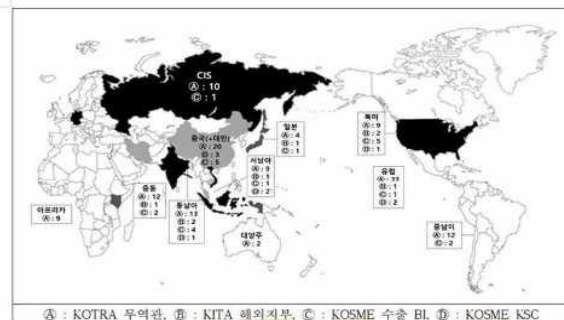
〔그림 2-2〕 해외사무소 운영지역 비교

5

5. 수출유관기관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표 2-13〉 수출 유관기관 해외사무소 비교

수출 유관기관	해외사무소 형태	해외 사무소	주요 지원사업	비고
코트라 (KOTRA)	해외무역관	84개국 128개소	수출지원 해외 진출 지원 경제협력 및 일자리 지원 외국인 투자유치	
한국무역협회 (KITA)	해외 지부	8개국 11개소	수출지원 해외 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KOSME)	수출 인큐베이터	13개국 22개소	수출지원 해외 진출 지원	
	코리아 스타트업센터	6개국 6개소	수출지원 해외 진출 지원	



〔그림 2-4〕 수출유관기관 해외사무소 국가별 설치현황

6

5. 충남도 해외사무소 운영성과

- 단순 수출 상담부터 수출 계약지원까지 전방위적 수출지원센터 역할 수행을 통하여 실질적인 수출 상담 및 계약 도출, 수출기업에 다양한 해외비즈니스를 지원

〈표 3-12〉 충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실적(최근 3개년)

구분	합계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상담액 US \$3,090,800(37억)	US \$799,800	US \$2,291,000	-
	수출진행액 US \$1,689,109(20억)	US \$485,100	US \$1,195,000	-
	수출액 US \$696,029(8억)	US \$424,149	US \$271,943	-
	수출계약지 원	54개사(130건)	30개사(73건)	24개사(57건)
	수출액도지 원	120개사	66개사	54개사
베트남	상담액 US \$11,398,809(139억)	US \$4,559,000	US \$6,833,800	US \$145,000
	수출진행액 8,069,500(97억)	US \$2,677,500	US \$5,388,000	US \$44,000
	수출액 1,052,658(12억)	US \$507,873	US \$540,077	US \$4,908
	수출계약지 원	119개사(290건)	64개사(139건)	32개사(118건)
	수출액도지 원	226개사	76개사	119개사
인도네시아	상담액 \$58,031,615	\$5,421,000	\$22,290,000	\$30,320,615
	수출진행액 \$44,292,423	\$3,772,000	\$20,035,000	\$20,885,423
	수출액 \$4,959,529	\$2,054,874	\$682,005	\$2,022,650
	수출계약지 원	400개사	137개사	121개사
	수출액도지 원	287개사	113개사	102개사
출발마이크 발굴	296개사	98개사	97개사	105개사

- 현지 지방정부 및 국내외 통상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협약 체결(총 9건)을 통하여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및 대외 인지도를 강화

〈표 3-11〉 충남도 해외사무소 관련 교류협력협약 현황

구분	주요내용
인도 뉴델리(4)	-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협약체결(22.7.26.)
	- APEDB(Andhra Pradesh Economic Development Board) 협약체결(21.12.)
	- ICFA(Indian Chamber of Food and Agriculture) 협약체결(21.12.)
	- KOSMA(제인도한국공조기업인연합회)*** 협약체결(21.2.)
베트남 하노이(2)	- Nghe An성 인민위원회 투자무역관장정(NAPC) 협약체결(22.7.21.)
	- Thanh Hoa성 투자무역관장정 협약체결(22.3.2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2)	- 동테마르 인도네시아 협약체결(22.4.22.)
	- 인도네시아 식용요협회(GAPMMI) 협약체결(22.4.21.)
충남경제진흥원(1)	- 한국무역보험공사 협약체결(22.2.)

제4장 도내 기업 수요분석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 도내 2,500여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충남 해외통상사무소 추가 설치에 대한 제1차 본 설문조사를 2022년 10월 21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시하였음. 총 420여개 중소기업이 본 설문조사에 응답하였음. 1차 설문조사를 토대로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2차 본 설문조사를 실시함.

2.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응답기업의 특성

〈표〉 설문응답 기업의 지역 분포

항목	빈도	비율(%)
① 천안	144	34.3
② 아산	94	22.4
③ 당진	21	5
④ 공주	18	4.3
⑤ 서산	10	2.4
⑥ 홍성	14	3.3
⑦ 보령	16	3.7
⑧ 태안	3	0.7
⑨ 청양	6	1.4
⑩ 논산	27	6.4
⑪ 부여	4	1
⑫ 예산	25	6
⑬ 서천	9	2.1
⑭ 금산	26	6.2
⑮ 계룡	3	0.7
합계	420	100

11

2.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응답기업의 특성

- 설문응답 기업의 수출품목은 21.8%가 농산식품, 9.2%가 화장품류, 8.3%가 의료바이어 제품, 12.2%가 화학제품, 10.7%가 자동차 및 부품, 11.7%가 기계 및 철강, 6.4%가 ICT제품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타는 19.8%로 나타난. 기타는 환경기계, 유기질 비료, 레저용품 등 다양하게 나타난.

〈표〉 설문응답기업의 수출품목 (복수선택)

항목	빈도	비율(%)
① 농수산물품류	102	21.8
② 화장품류	43	9.2
③ 의료바이오제품	39	8.3
④ 화학제품	57	12.2
⑤ 자동차 및 부품	50	10.7
⑥ 기계 및 철강	55	11.7
⑦ ICT제품	30	6.4
⑧ 기타	93	19.8
합계	469	100

13

2) 충남도 해외통상사무소 활용실태 및 수요에 대한 분

(I) 해외통상사무소 활용실태

- 설문응답 기업 420개 중 162개 기업(38.6%)이 충남
해외사무소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58개 기업(61.4%)가 활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충남도 해외통상사무소 활용실태

항목	빈도	비율(%)
① 있다	162	38.6
② 없다	258	61.4
합계	420	100

13

3) 해외통상사무소 추가설치 지역 및 업무에 관한 질문

(1) 충남 해외통상사무소 추가 설치 국가

- 충남 해외통상사무소 추가설치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 18.5%, 동남아시아 16.4%, 중국 14.6%,
서유럽 10.8%, 일본 10.6%, 중동 9.9%, 동유럽
8.9%로 나타남. 이밖에 중남미(6%), 아프리카
(2%),
기타(1.7%: 중앙아시아, 대만 등)으로 나타남

〈표〉 충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추가 설치 국가

항목	빈도	비율(%)
① 중국	154	14.6
② 미국	199	18.5
③ 일본	111	10.6
④ 동남아시아	173	16.4
⑤ 동유럽	94	8.9
⑥ 서유럽	113	10.8
⑦ 중동	104	9.9
⑧ 아프리카	21	2
⑨ 중남미	63	6
⑩ 기타	18	1.7
합계	1,050	100

14

〈표〉 기업이 활용한 충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서비스 (복수선택)

항목	빈도	비율(%)
① 바이어 찾기	120	31
② 바이어와 거래 실무 지원	41	11
③ 해외지사화 사업	26	6.7
④ 해외출장 현장지원	35	9.1
⑤ 해외전시회참가	34	8.85
⑥ 무역사절단 상담지원	24	6.25
⑦ 온라인쇼룸물 입점	5	1.3
⑧ 수출상품 홍보	42	10.9
⑨ 수출시장 정보수집	44	11.5
⑩ 현지진출기업지원	8	2.1
⑪ 기타	5	1.3
합계	384	100

(2) 해외통상사무소 이용만족도

○ 도내 기업들의 해외통상사무소 이용만족도를 살펴보면,
매우 높았다 44.4%, 높았다 40%,
보통이다 12%, 낮았다 3%,
매우 낮았다 0.6%로 나타남

〈표〉 충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이용만족도

항목	빈도	비율(%)
① 매우 높았다	72	44.4
② 높았다	65	40
③ 보통이다	19	12
④ 낮았다	5	3
⑤ 매우 낮았다	1	0.6
합계	162	100

15

(3) 충남 해외통상사무소의 필요성 (전체 설문응답자)

○ 도내 기업들은 충남 해외통상사무소의 필요성에 대해
66%가 ‘필요하다’, 31.4%가 ‘필요하며 단계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31.4%, ‘필요하지 않다’ 2.6%로 응답함

〈표〉 충남 해외통상사무소의 필요성 (전체 설문응답자)

항목	빈도	비율(%)
① 필요하다	277	66
② 필요하며 단계적으로 확대가 요청된다	132	31.4
③ 필요하지 않다	11	2.6
합계	42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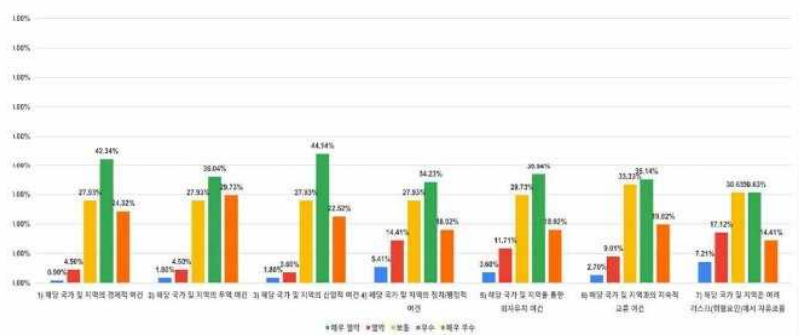
16

4) 충남 해외통상사무소 추가설치 국가/지역의 여건

(1) 미국 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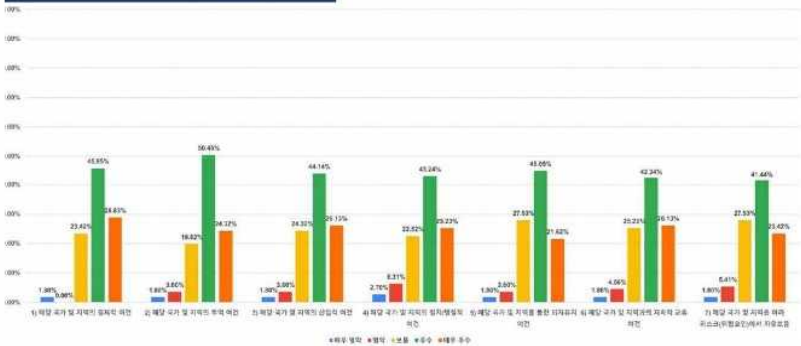


(2) 중국 상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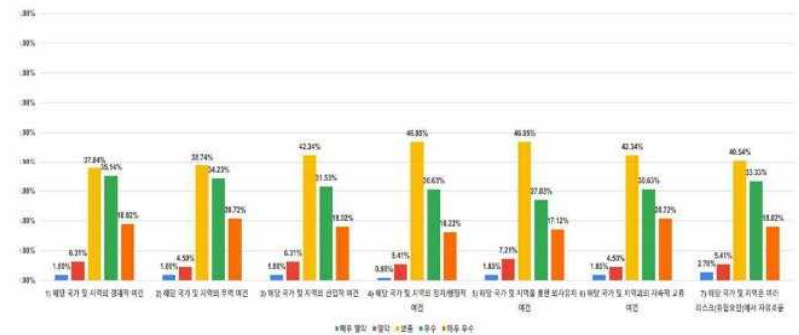


17

(3) 일본 도쿄



(4) 일본 후쿠오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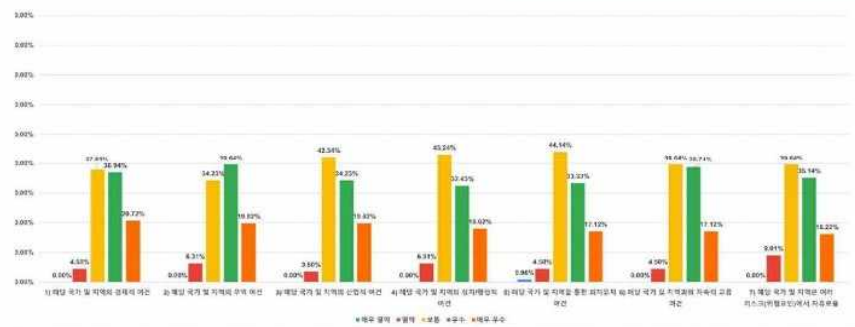


18

(5) 독일 프랑크푸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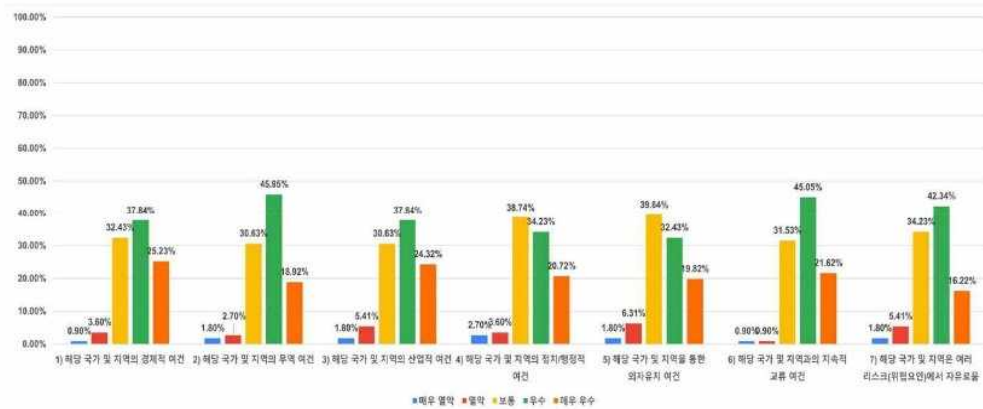


(6) 폴란드 바르샤바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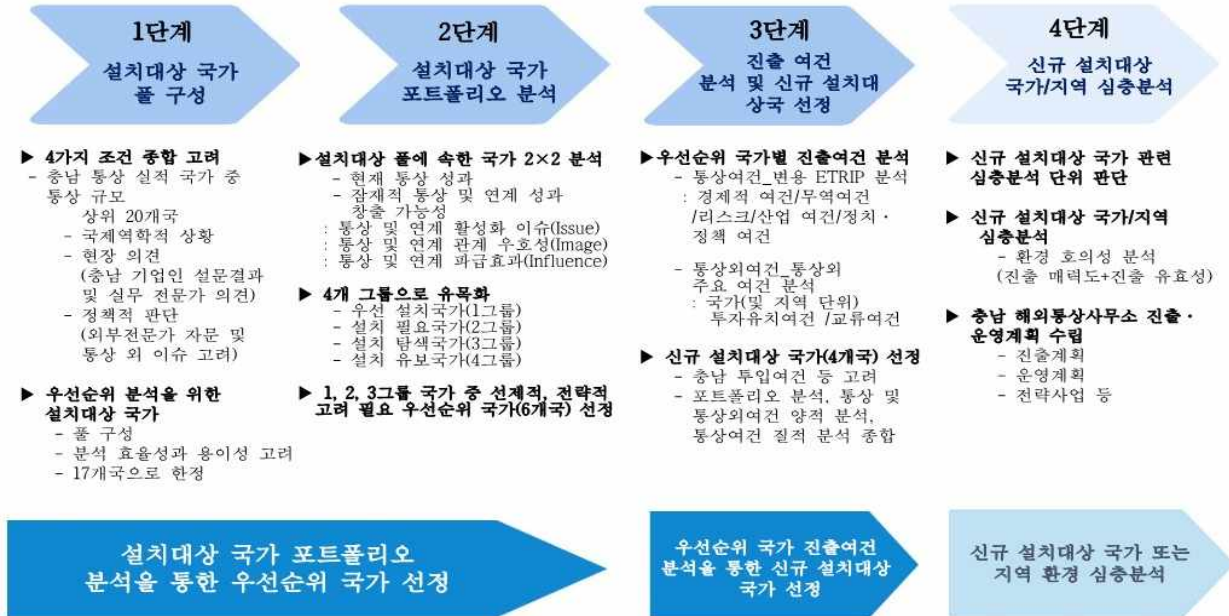
(7) 태국 방콕



20

제 5장 충남 해외통상사무소 설치대상 국가 분석

제1절 설치대상 국가 타당성 분석 절차



21

설치대상 국가 풀 구성

- 설치대상 국가 풀 구성을 위해, 충남의 기존 통상 성과(수출입 실적 규모) 자료 및 특이사항 등을 검토함. 기존 통상 성과 상위 20개국을 중심으로 하고, 국제역학적 상황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설치대상 국가 풀 중 15개를 선정함.
- 현장 의견(충남 기업인 설문결과 및 실무 전문가 의견) 및 정책적 판단(외부전문가 자문 및 통상 외 이슈인 외자 유치 및 거점 교류 긴밀화 필요) 등을 통해, 위 도출된 국가와 중복된 곳을 제외하고, 추가로 2개국(태국과 독일)이 검토 대상국 후보 풀로 추가되어, 총 17개 국가를 설치대상 국가 풀로 구성함.

- 북미지역: 미국
- 중남미지역: 멕시코, 브라질
- 동아시아지역: 중국, 일본
- 동남아시아지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 오세아니아지역: 호주, 뉴질랜드
- 유럽지역: 영국, 폴란드, 네덜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독

일

22

설치대상 국가 포트폴리오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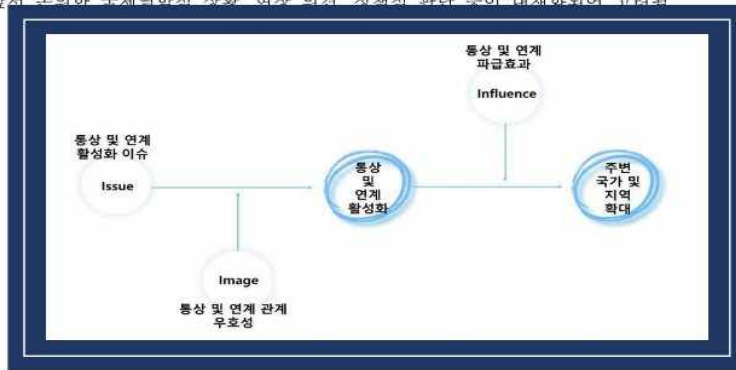
○ 17개 설치대상 폴에 속한 국가에 대해 2×2 설치 포트폴리오 분석을 수행함. 분석 프레임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서

1970년 초반 개발한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기법인 BCG 매트릭스(혹은 성장-점유율 매트릭스)를 원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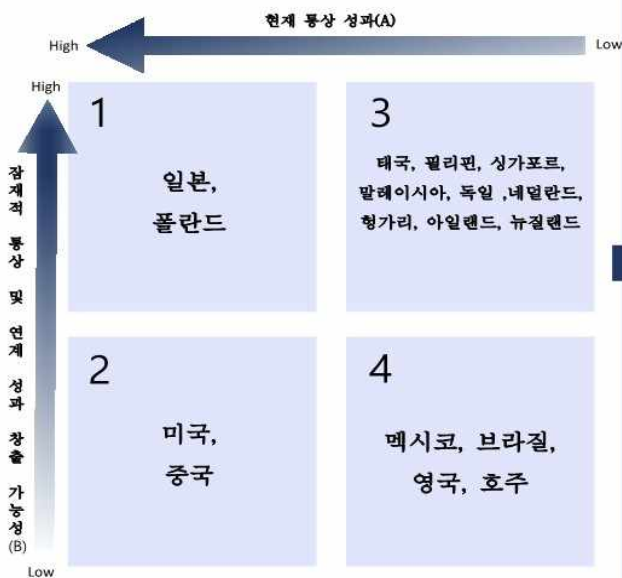
- BCG 매트릭스에서 과거-현재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점유율'은 '현재 통상 성과' (X축)로,
 近 미래-미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성장'은 '잠재적 통상 및 연계 성과 창출 가능성' (Y축)으로 재정의함
- 현재 통상 성과는 기존 통상규모 자료를 활용해 판단함
- 잠재적 통상 및 연계 성과 창출 가능성은 세 가지 측면으로 평가 준거(3D)를 세분화하여 구성함.

여기에는 앞서 논의한 국제연합적 상황, 현장 의견, 정책적 판단 등이 내재화되어 고려됨



23

설치대상 국가 폴 및 포트폴리오 분석



1그룹: 우선 설치국가(A, B High)

기존 통상 규모 및 실질적 성과가 높은(무역수지 흑자) 국가로, 통상 및 연계 활성화 이슈, 통상 및 연계 관계 우호성, 통상 및 연계 파급효과 등 잠재적 통상 및 연계 성과 창출 가능성 또한 높아 우선적인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고려가 필요한 국가 (안정성은 점검 필요함)

2그룹: 설치 필요국가(A High, B Low)

기존 통상 규모 및 실질적 성과가 커서(흑자 수치) 현재 통상 성과는 높은 국가임. 다만, 잠재적 통상 및 연계 성과 창출 가능성에서는 기존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추세가 예상됨. 현상 유지, 안정적 성과향상 등 등을 위해 해외통상사무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국가

3그룹: 설치 탐색국가(A Low, B High)

기존 통상 규모 및 실질적 성과 등에서 높다고 할 수 없는 통상 성과를 나타내는 국가로, 통상 및 연계 활성화 이슈, 통상 및 연계 관계 우호성, 통상 및 연계 파급효과 등 잠재적 통상 및 연계 성과 창출 가능성은 높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모니터링 필요한 국가 (선제적, 전략적 시도 일부 필요함)

4그룹: 설치 유보국가(A Low, B Low)

기존 통상의 실질적 성과가 낮은(무역수지 적자) 국가로, 통상 및 연계 활성화 이슈, 통상 및 연계 관계 우호성, 통상 및 연계 파급효과 등 잠재적 통상 및 연계 성과 창출 가능성 역시 낮은 편임. 일정 기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필요하지 않은 국가(지속적인 상황변화는 주시 필요함)

24

제2절 설치대상 우선순위 국가 선정

○ 포트폴리오 분석결과와 관련 종합 정보/자료 검토, 외부 및 실무전문가 의견 및 연구진 논의 등을 거쳐 우선순위 국가로 총 6개국을 선정함 (4그룹 제외 각 그룹별 2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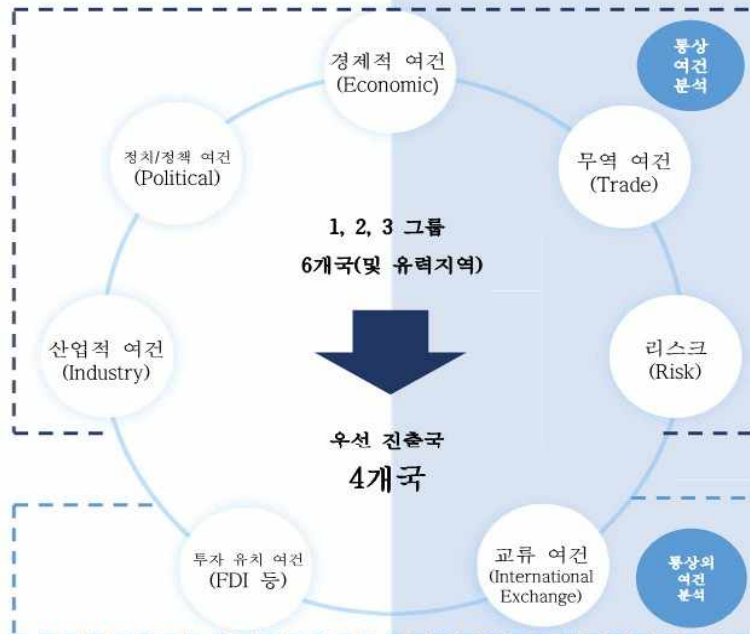
- 전술한 대로, 높은 현재 통상 성과가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1, 2그룹의 우선순위 국가(일본, 폴란드, 중국, 미국) 외에, 잠재적 통상 및 연계 성과 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3그룹의 태국과 독일이 포함됨. 태국은 현장 의견(충남 기업인 설문결과) 및 외부전문가 자문 등에서 높은 평가를, 독일은 통상 외 외자 유치(최근 3개년 지속 유치 등) 및 서유럽 거점지역으로서 가치(충남 기업인 설문결과 및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높게 평가받아 선제적, 전략적인 설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구분	현재 통상 성과	Issue (통상 및 연계 가능성 활성화 이슈)	Image (통상 및 연계 관계 우호성)	Influence (통상 및 연계 파급효과)
설치 필요 국가 (2그룹)	중국	- 미·중 갈등 및 북한 도발 등으로 정치적, 국제역학적 측면에서 예측불가한 리스크가 높아짐 - 경제대국 중 경제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측면이 있고 경제적 개입이 과감하게 이루어짐	-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사드 사태 및 헝가리 등의 여파로 비우호적 분위기도 상존함	- 전체 경제 규모 등의 측면에서 전술 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 내 타지역 확대 가능성이 높은 편임
설치 필요 국가 (2그룹)	미국	- 건고한 통상 관계가 존재하지만, 자국 산업의 필요 중심으로 우호적 통상 분위기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마이크로소프트) - 현재 기준, 직접적 사무소 설치 외에 다양한 통상 기제가 존재함	- FTA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해오고 있으며, 최근 한류 및 아카데미/에미상 수상 등의 영향으로 문화적 이해 및 유대 역시 강화됨	- 전체 내수시장, 상징성, 전 세계적 통상 거점 기능, 통상 외 해외통상사무소의 역할 등의 측면에서 직접적인 우안이 어려운 진출 검토 필요성이 존재함
우선 설치 국가 (1그룹)	일본	- 북한 도발 및 한미일 공조 체계 등의 필요성으로 급속한 관계 개선 가능성 제기 - 국가 수준에서의 지속적 무역수지 적자에도 충남은 흑자로 전환	- 국가적 차원보다 지역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과의 교류가 진일보하고 익숙한 측면이 있음(특히 후쿠오카 등 충남 지관 지역 중심 교류 지속)	- 전체 경제 규모 등의 측면에서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한 통상 협력 확산가능성이 높음 - 최근 3개년 간 충남 외자유치가 이어져오는 등 통상 외 효과 연계가능성도 높은 편임
우선 설치 국가 (1그룹)	폴란드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식 후 대규모 재건사업 가능성 - 기존 자동차 등 제조업과 최근 방산 등을 중심으로 협력 공간 확대(충남 로봇기술 연계 등도 이루어짐)	- 최근 쇼팽 콩쿠르 입상 및 우송, 다양한 문화적 교류 확대 등으로 관련 유대 강화 - 2022년 국내 방산 수출의 절대비중을 차지해 전략적, 군사적 측면에서도 상호의존성 심화	- 7개국에 안전한 지리적 이점으로도 통상 허브 가능성 높음 - 유럽 중 원소 중의 비중이 비교적 큰 곳으로 활발한 구·점·매·점 및 홍보효과 등 다양한 그림자효과가 기대됨
설치 탐색 국가 (3그룹)	태국	- 태국 4.0 등 거시/대규모,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충남 통상 공간 확보, 확장 가능성 높음 - 관광업 외에 시설상 제조업 강국으로 관련 인프라 및 기술이 풍부하고, 인력 교류 등에도 기여 가능성이 높음	- 전 세계의 한국어 학습 중인 인력 중 30% 이상이 태국인으로 알려짐 - 오랜 주교 관제 및 문화적 교류 특히 태국 주력산업인 관광업을 중심으로 한 교류도 상호 호의적 이미지 형성, 유지	- 이세안의 중심 국가로 미진출 이세안 국가는 물론 CLM(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 및 교두보 역할이 가능함
설치 탐색 국가 (3그룹)	독일	- 기존 충남에 진출한 유수의 기업들이 존재해 관련 외자 유치 확대가 용이한 측면이 있어 독일 내 거점 마련이 필요함 -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기술 이전 및 상호 보완적 기술협력 가능함	- 분단국의 역사적 측면에서 정치적 유대감 있음 - 과거 국내 산업화 초기에 원자재 및 일자리를 통해 기여하는 등 오랜 협력의 역사가 있음 - 국내 해외자 수입에서 독일과 비중이 압도적임	- 제조업 등의 측면에서 제조업 강국 독일과의 유기적 협력은 충남 제조업의 글로벌 브랜드를 업그레이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브렉시트 이후, EU의 중심국가로서 관련된 위상과 영향력 이 더욱 커짐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25

우선순위 국가 진출 여건 분석



26

제3절 신규 설치대상 국가 선정

구분	사전 단계 *제5장 참조	본 단계(1차) *컷오프 방식: 3.5점 미만 / 제4장 참조						본 단계(2차) *허들 방식: 4개국 선정	최종 선정	
		설치대상 국가 우선순위 분석	충남 기업인 설문결과(양적)							
			통상여건분석 (5점 만점)	통상여건분석 (5점 만점)						통상여건 분석(질적) *통상의 고려
				투자유치		교류				
중국 (상하이)	2그룹 (설치 필요국가)	3.65		3.57				긍정적 3 중립적 2	선정	
				3.54	3.60					
미국 (LA)	2그룹 (설치 필요국가)	4.01		3.94				긍정적 3 중립적 2	선정	
				3.83	4.04					
일본 (T:도쿄, F:후쿠오카)	1그룹 (우선 설치국가)	T: 3.88	F: 3.60	T: 3.84 F: 3.57				긍정적 3 중립적 2	선정	
				T: 3.81	T: 3.50	T: 3.86	F: 3.63			
폴란드 (바르샤바)	1그룹 (우선 설치국가)	3.67		3.65				긍정적 2 중립적 3	미선정	
				3.61	3.68					
태국 (방콕)	3그룹 (설치 탐색국가)	3.72		3.60				긍정적 2 중립적 3	미선정	
				3.60	3.85					
독일 (프랑크푸르트)	3그룹 (설치 탐색국가)	4.01		3.90				긍정적 3 중립적 2	선정	
				3.90	3.90					

27

제 6장 신규 설치대상 분석 및 운영 계획

제1절 신규 설치대상 지역 심층 분석(환경 호의성 분석) 프레임

차원(대분류)	영역(중분류)	요인(소분류)	비고
지역 매력도	일반특성	- 지리적 특성 (위치, 기후, 주변 지역 교류 활성화 정도 등) - 정치적 특성(거버넌스 특성, 지역 간 협력체 참여 등) - 사회/문화/정서적 특성 (대 한국 및 충남 호의성 등 포함) - 교류 지속 및 발전 가능성 등	
	시장여건	- 시장규모 일반 (인구, 소득 등 포함) - 경제/산업적 특성 - 시장성속도 및 성장성 - 주요 동상/교역 품목 및 규모 - 대외(한국) 투자 규모 등	국가적 측면 일부 연계
	리스크	- 대외적 요인 (주변 지역 영향 관련) - 대내적 요인 (해당 지역 영향 관련)	국가적 측면 일부 연계
지역 진출유효성	정부규제	- 현지투자 및 진출 관련 규제 또는 지원 일반 - 현지투자 및 진출 관련 규제 또는 지원 차별점 (타 지역 대비)	국가적 측면 일부 연계
	경쟁환경	- 타 지역 현지 진출현황 - 타 국내 지자체 현지 진출현황 - 충남 해외 진출 산업 및 품목 유관 현지 경쟁산업 활성화 정도 등	
	현지인프라	- 물적 인프라 (교통, 통신, 인터넷, 스마트폰 보급 정도, 필요 설비 조달 용이성 등) - 인적 인프라 (한국어 학과 보유 대학 및 세종학당 등 현지 한국어 가능 인력 확보 등) - 네트워크 인프라 (현지 진출 국내 기관 및 기업 등 협조 가능 네트워크 유무 등)	

28

제2절 신규 설치대상 지역 심층 분석

1. 중국 상하이 심층 분석(환경 호의성 분석)

구분		주요사항		외부환경 호의성
		기회	위협	
지역 매력도	일반특성	(지리적 특성)중국의 대외개방 창구이자 주요 수출입 국경 출입구임,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등 화동지역의 중심도시로서 거점 역할 가능 (사회/문화/정치적 특성)중국 내 여러 지역 중 가장 국제적, 현대적, 개방적 특성 보유	-	● (매우 호의적)
	시장여건	(시장규모 일반)상하이등 허브로 하는 화동지역은 2022년 1분기 기준 중국 전체 수출입 총액의 45.4% 비중, 대외무역 증가율은 중국 전체 평균 상회 (시장성숙도 및 성장성)1인당 GDP와 1인당 가처분소득이 전국평균의 약 2배, 지속 성장세 *1인당 소득 상위 5개 지역에 1위 상하이 포함 화동지역 3개	(경제/산업적 특성)제3차 산업인 서비스업 산업의 비중이 비교적 높고, 제2차 산업은 글로벌 초일류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활성화되어 있고, 세계최대 무역항으로서 통상환경이 원활해 차별화된 통상 품목 등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함	● (호의적)
	리스크	(대내적 요인)최근 코로나19 방역 통제 완화 조짐이 나타남	(대외적 요인)미·중 통상 분쟁 및 미국을 위시한 글로벌 통상 마찰 상존 (대내적 요인)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방역 통제 강화, 자국산업 보호정책	● (중립적)
지역 진출 유효성	지원/규제	(현지지원)국가는 물론 지역 중심 소비진작책, 대외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교적 신속하고 유연한 지역 정책 전개	(현지규제)자국산업 우선, 보호정책 강화 가능성	● (호의적)
	경쟁환경	(타 국가/지역 비교 관련)한국 및 제품의 프리미엄 이미지에 따른 선호도 향상, 중국 내 최대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관련 현재 가능성 높음	(타 지자체 진출 관련)국내 광역단위 지자체 14개 중 충남 제외 13개 지역이 중국 사무소 운영 중이며, 10개 지역이 상하이 사무소 운영 중, 경쟁 양상 가능성	● (호의적)
	현지인프라	(인적 인프라)관련 이력 및 경험을 갖춘 국내의 전문인력 수준이 비교적 용이함 (네트워크 인프라)KOTRA 무역관, 한국무역협회 해외지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인큐베이터가 진출해 있어 지원 협력체계 구축이 수월함	(물적/정보 인프라)과거 충남 상하이 무역관 운영 시행착오 경험의 체계화된 축적이 미흡하고, 폐쇄 지역 재진출에 따른 이미지 제고 필요	● (호의적)

29

2. 미국 LA 심층 분석(환경 호의성 분석)

구분		주요사항		외부환경 호의성
		기회	위협	
지역 매력도	일반특성	(사회/문화/정치적 특성)LA를 중심으로 한 캘리포니아주의 인구 구성은 백인 외 인종 63.5%로 다인종, 다문화적 속성으로 개방적이고 다양성 높음	-	● (매우 호의적)
	시장여건	(시장규모 일반)캘리포니아주의 GDP는 3.4조 달러로 한국의 1.9배이고 미국 전체 중 1위임. (통상규모/여건)한국은 캘리포니아주 수출이 수입의 2배가 넘어 무역수지 흑자, LA는 서부 최대 교역항인 롬비지와 로스앤젤레스 항만이 위치해 물류, 태양광, 공력발전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기타)하루드름 등을 중심으로 LA 연간 방문객 약 5천만 명으로 글로벌 마케팅 및 비즈니스 기회 가능성	(경제/산업적 특성)캘리포니아주의 주요 사업은 서비스업이지만, 본사가 위치한 포천 500대 기업은 126개사로 미국 전체 주중 가장 많아 관련 품목의 경쟁력 중요	● (매우 호의적)
	리스크	(대외적 요인)한국 주요기업의 현지 투자확대 등으로 중남기업 등에 있어 우산효과 가능성	(대외적 요인)미·중 갈등 양상 속에 양자 관련 이슈에 관한 강제적 선택 입장 가능성, 서부에서 동부 무역항으로 물동량 이전 양상 (대내적 요인)인플레이션 및 경기 회복 양상의 불안정성, 미국 내 제조 및 생산에 대한 압력 증가	● (호의적)
지역 진출 유효성	지원/규제	(현지규제/지원)해외 비즈니스 관련 진입에 개방적이고 용이한 측면을 가짐, 바이아메리칸 법의 중국 규제에 따른 상대적 기회 가능성	(현지규제/지원)바이아메리칸 법 등 자국 산업 보호 규제와 자국민 건강 및 후생 목적의 수입 관련 규제 유의 필요	● (호의적)
	경쟁환경	-	(타 지자체 진출 관련)국내 광역단위 지자체 14개 중 6개가 미국에 사무소 운영중으로 5개가 LA, 1개가 샌리본밸리에 위치해 모두 캘리포니아주 소재 (현지 경쟁산업 활성화)LA 진출 외국계 기업은 18,451개사로 글로벌 비즈니스의 각축장	● (중립적)
	현지인프라	(인적 인프라)관련 이력 및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 수준이 용이하며, 현지 각종 협력이 가능한 교민 다수 *미 전역 약 30% 캘리포니아주 거주 (네트워크 인프라)KOTRA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인큐베이터 운영중이며, 총영사관, 한국무역보험공사 LA지부, LA 세계한인무역협회, 남가주 한국기업협회, LA 한인상공회의소 등 활성화된 조직 상존	(물적/정보 인프라)과거 충남 LA 무역관 운영 시행착오 경험의 체계화된 축적이 미흡하고, 폐쇄 지역 재진출에 따른 관련 이미지 제고 등 필요	● (매우 호의적)

30

3. 일본 도쿄 심층 분석(환경 호의성 분석)

구분		주요사항		외부환경 호의성
		기회	위험	
지역 매력도	일반특성	(지리적 특성)도쿄도와 주변 7현으로 수도권인 도쿄권을 형성하며 해당 지역의 총인구는 약 3,5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며, 일본 제1의 경제권 형성	(사회/문화/정치적 특성)협한 등 일부 반한 정서 표출이 종종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음	● (호의적)
	시장여건	(시장규모 일반)도쿄도의 2019년 기준 GDP는 세계 도시 1위를 기록하는 등 내수시장 규모 큼 *GDP: 115조 7,000억 엔 (경제/산업적 특성)세계 3대 금융 중심지 중 하나이며, 일본은행 본점 및 도쿄 증권거래소는 물론 세계최대 규모 은행과 보험 회사 본사를 위치, 모노즈쿠리를 유지하는 세계적 중소기업 다수 위치(한국 투자)도쿄가 중심이 된 일본의 투자는 2021년을 기점으로 계속감소, 외국인 투자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의무어짐(2018년 제외) *약 12억 1,000만 달러	(경제/산업적 특성)국가전략특구 지정 등을 통해 국제 비즈니스 거점으로 자리매김되었지만, 관련 경제/산업 영역에서 대규모 내수시장과 투자유치를 제외하고 여타 산업 영역은 충남과 중복적 측면이 있음	● (매우 호의적)
	리스크	(대외적 요인)과거 리스크였던 한·일 관계는 북한 도발 및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한미일 공조 필요성 강화 등으로 상당 부분 개선 가능성	(대외적 요인)대한민국 수출규제 및 역사문제로 인한 갈등 상존, 고령인구 증가 가속화에 따른 소비 경직화, 제조업 영역의 해외 진출 및 생산 확대 등에 따른 부담 수요 감소 가능성 등 (대내적 요인)인부 반한 정서 관련 돌발 이슈 등	● (호의적)
지역진출 유효성	지원/규제	(현지규제)국가전략특구 지정을 통해 각종 규제완화를 주요 정책 수단과 함, 법률 및 행정제도 정비와 수출입 시의 투명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글로벌 관원의 높은 평가	(현지규제)수입규제, PL법, 부당경쟁방지법, 의장법, 특허법 등 각종 법령이 엄격하고, 행정수속 및 인허가절차도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며, 까다로운 측면이 있음	● (중립적)
	경쟁환경	(현지 경쟁산업 활성화)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와 마케팅 활성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 여부와 기회 가능성	(타 지자체 진출 관련)국내 광역단위 지자체 14개 중 총 8개가 일본에 해외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6개가 도쿄에 위치 *오사카 2개(현지 경쟁산업 활성화)온라인 소비와 마케팅 활성화에 따른 경쟁 부각	● (호의적)
	현지인프라	(물적 인프라)공공 교통기관 서비스 효율성, 전력 이용 안정성, 도시 안전성 등 각종 지표의 글로벌 최상위권 (네트워크 인프라)KOTRA 무역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인큐베이터, 한국무역협회, 대사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수산금융공사, 전경련, 한국은행, 외환/신한/산업 도쿄지부 및 지점 등 다각적 협력 가능	(인적/정보 인프라)일어를 제외한 영어 등 외국어 구사 비즈니스가 수월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매우 호의적)

31

4. 일본 후쿠오카 심층 분석(환경 호의성 분석)

구분		주요사항		외부환경 호의성
		기회	위험	
지역 매력도	일반특성	(지리적 특성)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국가 및 도시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항공 노선 등 국제 교통편과 대외 무역이 활발함, 규슈지역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중심도시(사회/문화/정치적 특성)한국과의 인접성 등으로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	-	● (매우 호의적)
	시장여건	(시장규모 일반)1할 경제로 불리지만, 규슈지역 GDP는 세계 34위 이집트 GDP 초과, 후쿠오카-기타규슈권은 일본 제4의 광역 경제도시권으로 분류(경제/산업적 특성)일본 4대 공업 지대 중 하나로 자동차 및 부품, 반도체, 조선업, 철강업에 강하고, 관광업 역시 활성화 *관광객 중 약50% 한국인 (기타)통상 및 투자유치 외에 다양한 지역 국제교류 활성화 가능성 높음	(통상 관련)한국과의 교역규모가 일본 내에서 큰 편이고, 관련 비중은 일본 전체 평균을 2배 정도 상회하지만, 한국의 적자수지가 큰 편으로, 편중된 선택적 품목 수입 양상이 일부 나타남	● (호의적)
	리스크	(대외적 요인)과거 리스크였던 한·일 관계는 상당 부분 개선 가능성이 높아 지역적 차원의 통상 및 교류 활성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대외적 요인)대한민국 수출규제 및 역사문제로 인한 국가적 갈등 가능성 상존	● (호의적)
지역 진출 유효성	지원/규제	(현지지원)벤처 지원 및 스타트업 육성에 매우 효과적으로 글로벌 창업/고용창출특구로 지정되어 외국인 창업가 비자 사전부여 등 관련 유연한 제도운영 *순정의 회장 고향으로 유망 *한·중·일 거점 지역(규슈)으로 주목	(현지규제)수입규제, PL법, 부당경쟁방지법, 의장법 특허법 등 각종 법령이 엄격한 측면이 있음	● (호의적)
	경쟁환경	(타 지자체 진출 관련)해외사무소 운영 중인 국내 광역단위 지자체 14개중8개가 일본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으나, 후쿠오카에는 부재	(기타)기본적으로 자국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크고, 해외 제품의 경우, 혁신적 제품이나 가성비 좋은 제품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음	● (호의적)
	현지인프라	(인적/정보 인프라)일본의 주요 광역경제권에 위치한 KOTRA의 후쿠오카 무역관이 위치하며, 최근 규슈지역 국내기업 법인 설립도 비교적 증가세 (네트워크 인프라)충남 본청은 규슈지역 중앙의 구마모토현과 약40년의 오랜 자매교류를 이어왔고, 충남 보령의 경우, 후쿠오카와 결연관계임	(물적/정보 인프라)과거 충남 구마모토 사무소 운영 시행착오 경험의 체계화된 축적이 다소 미흡하고, 폐쇄 지역 재진출에 따른 이미지 제고 필요	● (호의적)

32

5. 독일 프랑크푸르트 심층 분석(환경 호의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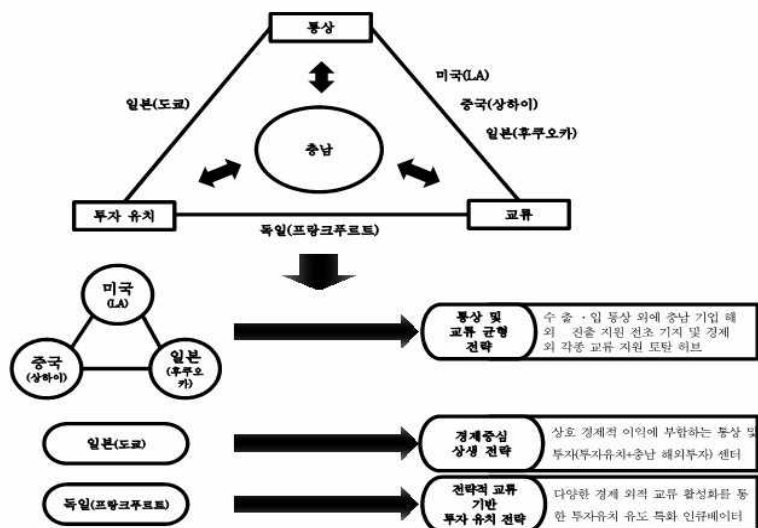
구분		주요사항		외부환경 호의성
		기회	위험	
지역 매력도	일반특성	(지리적 특성)라인강을 가장 쉽게 건널 수 있는 지역으로 국제무역 및 항공, 철도, 자동차 등 교통의 요지임 (사회/문화/정치적 특성)광역권 인구는 580만 명이 넘어 독일 내 세 번째, 유럽에서 손꼽히는 현대적 대도시	-	● (호의적)
	시장여건	(경제/산업적 특성)독일의 경제 및 금융 중심지로 EU 및 독일의 주요 금융기관이나 기업 본사가 위치함, 세계적 박람회 도시 *브렉시트로 국제 금융 중추 도시 위상 확대 및 강화 (대외투자)유럽국가 중 3위 규모 투자국인 독일의 금융중심지, 대한민국 투자는 최근 대폭 확대 예상, 총 510여 개 독일계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 곳에 진출 중 *투자: 2020년 5억2천만 달러 -> 2021년 28억3천만 달러	(대외투자)아직은 대한민국 투자 업종이 화학, 자동차 및 기계설비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매우 호의적)
	리스크	(대내적 요인)금융업 및 각종 서비스업이 발전해, 각종 대외적 리스크에서 조금은 자유로움	(대외적 요인)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영향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불확실성	● (호의적)
지역 진출 유요성	지원/규제	(현지규제)독일 대도시 중 가장 높은 외국인 비율로 해외기관 및 기업 등의 진출에 비교적 편의적이고 개방적인 것으로 판단됨	-	● (호의적)
	경쟁환경	(경쟁 활성화)여러 기관 및 기업이 진출해있으나 충남 진출 유력 품목과의 연관 중첩성이 낮은 편으로 보완효과 가능	(타 지자체 진출 관련)해외사무소 운영 중인 국내 광역지자체 14개 중 5개가 유럽에 진출해 있으며, 러시아 3개를 제외하고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2개 위치	● (호의적)
	현지인프라	(인적/물적 인프라)KOTRA 무역관 및 총영사관이 위치하며,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인큐베이터 중 유럽 내 유일한 운영지역임, 독일 비행 시 프랑크푸르트로 진입하는 등 교통 인프라 강점 (네트워크 인프라)국내 주요 대기업 진출, 도 차원에서 바이에른 자유주와 우호교류 *프랑크푸르트가 위치한 헤센주와 인접	-	● (호의적)

33

제3절 신규 설치대상 국가 및 지역별 진출전략

지역 해외통상사무소의 통상, 투자유치, 교류의 가치 역할과 기능과 그 조합에 따라 대략 7가지 진출전략 유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토털 전략: KOTRA의 경우처럼, 세 가지 영역을 모두 핵심 역할과 기능으로 하는 전략
- 통상중심 전략: 충남을 포함한 기존 대부분의 지자체 해외통상사무소와 마찬가지로 지역 생산품의 수출과 관련 원료, 원자재 및 부품 수입 중심
- 투자유치중심 전략: 일종의 금융 영업조직으로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관청, 기관 및 기업 대상 투자유치 활동 전개
- 교류중심 전략: 물적인 것 외에 문화적, 인적 지원, 교류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 유지, 강화(예: 유학생 유치 등 포함)
- 통상 및 교류 균형 전략: 통상 외에 충남기업 및 상품의 해외 직접 진출 지원, 경제 외의 각종 교류 지원을 통해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을 균형있게 유도하는 전략(통상+교류)
- 경제중심 상생 전략: 상호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호보완적 통상 확대와 투자유치 및 해외투자를 병행하는 전략(통상+투자유치)
- 전략적 교류 기반 투자유치 전략: 다양한 경제 외적 교류(정책적, 문화적, 인적) 활성화를 통해 투자유치를 유도하는 전략(교류+투자유치)



34

1. SWOT 관점에서 시사점

구분	내부 (SW)	외부 (OT)	시사점
제3장 충남도 해외통상 현황 및 운영 실적	✓		- 충남 해외통상사무소 확대와 전략적 운영을 통해 충남 해외통상의 구조적 공백(KOTRA 등 중앙기관 지원이 어렵고 차변 확대는)을 메우는 역할과 기능 필요 - 지역 해외통상사무소의 정착 및 활성화 관련 기간 소요에 따른 안정성과 지속성을 고려한 중장기적 접근 필요 - 해외통상사무소의 설치 자체만이 아니라 운영, 관리체계 정립 및 선진화 필요 등
제4장 도내 기업 수요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	✓	✓	- 충남기업의 해외통상 관련 수요가 매우 다양하고, 필요 정도가 높음 - 충남 해외통상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존과 차별화된 요구 존재(통상 외에 투자유치 및 교류 등) - 기존 통상 성과(규모) 외에 잠재적인 통상, 교류, 투자유치 등의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접근 필요 등
제5장 충남 해외통 상사무소 설치대상 국가 분석		✓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19 등 통상 외적 사안의 부정적 영향(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과 잠재적 위험이 매우 크므로, 자원의 분할적 투입이 필요 - 17개국(설치대상 국가 포함) -> 6개국(우선 대상 국가) -> 4개국(신규 설치대상 국가)으로 범위를 좁히는 과정에서 안정성 등을 고려한 글로벌 맥락에서의 경제적 위상과 영향력 중요성 확인(결과적으로, 경제 강국 중심 4개국 선정) - 한류 등 국가브랜드 향상과 각국의 환한국 통상, 투자, 교류 등의 증가로 충남 해외진출 성공 가능성 개선 등
제6장 신규 설치대 상 분석 및 운영계획		✓	- 4개 경제 강국에 대한 진출은 각국 단위의 환경 고려 외에 보다 미시적인 지역 단위의 환경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 - 각 지역이 갖는 국가 내 위상, 역할, 차별점 등에 따른 충남의 적합성을 고려한 전략적 방향 모색 필요 (예: 통상, 투자유치, 교류 등의 가중치를 고려한 접근)

35

2. 진출계획

1) 진출대상 지역의 사무소 개설 우선순위

○ (전제) 파견 주재원의 경우, 체류비자 취득과 현지활동 보장을 위해 KOTRA 내 파견으로 추진

개설 순위	국가/주(지역)	후보도시	주요요인
1	독일 헤센주	프랑크푸르트	-KOTRA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입주건물에 설치 가능 -독일기업 투자유치와 유럽시장 수출지원을 위해 우선 설치
2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KOTRA LA무역관 건물(KOTRA소유)에 재개설 가능 -농수산물 등 시장개척과 미국기업 투자유치 활동
3	일본 큐슈	후쿠오카	-쿠마모토현과 인접지역으로서 코로나이후 교류협력 체계 대응 -일본 내 신한류, 한일관계 개선에 대비, 수출 및 투자유치 지원 * 현지 KOTRA 무역관의 이전과 연계하여 개설시기 결정 필요
4	중국	상하이	-도내 수출기업의 지원수요에 부응하여 현장 지원체계 복원 -제로코로나 정책의 전환 이후 중국 소비시장 확대 대응 *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개설시기 결정 필요
5	일본	도쿄	-100여개사에 달하는 충남 도내 일본 외투기업 본사와 네트워크 -언어 문제 등으로 일본시장 진출이 어려운 도내 수출기업 지원

36

2) 신규 해외사무소 설치 후보지역의 현황

개설 순위	후보지	긍정적인 측면	고려 사항
1	프랑크 푸르트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이며, 금융, 교통, 경제 중심지 -유럽진출 한국기업의 밀집지역이며 유럽 지역본부 역할 담당 -프랑크푸르트 등 대도시 지역에 전시장이 소재, 연중 전체 산업분야의 전시회 개최 -독일에서 성공하면 유럽 및 전 세계시장 공략 가능 -중남의 주력품목인 자동차부품 등 중간재의 수출시장 개척 유망 -한국에 기 투자한 외투기업에 접근 유리 -코로나19이후 보다 안전한 공급기지로서 대한민국 투자수요 증가	-기존 중남기업 유럽시장 접근기회 부족 -유럽지역과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이 거의 없으며, 기 체결된 협약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 -언어장벽과 한국과의 시차로 인해 유럽 내에 영업사무소가 없는 기업은 거래진행에 애로 -높은 품질 수준과 가격경쟁력을 요구하는 시장특성 상 신규업체의 진입에 높은 장벽 존재 -단기간에 수출·투자유치 성과기양 불가 -고물가 지역으로서 활동성고가 미진할 경우에는 사무소의 존재에 대한 우려 초래
2	LA	-KOTRA 소유 건물 소재지로서 사무공간 확보 용이 -북미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다수의 바이어 존재 -한인 마켓을 통한 농식품의 단기간 내 수출성약 가능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과 네트워킹 기회 필요	-중남 상품의 미국시장 인지도 취약 -한인마켓을 선정한 전남 등 국내 지자체와 경쟁 불가피 -투입된 예산에 비해 수출성과가 낮을 경우, 사무소 운영에 대한 회의적 시각 초래 우려 -유능한 현지 직원 채용 시 높은 인건비 부담 -코로나로 인해 현지직원 채용이 어려운 상황
3	후쿠오카	-중남과 교류협력 지역인 쿠마모토현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쿠마모토에 대한 TSMC가 진출함에 따라 중남 반도체 관련 기업의 진출 가능성 -투자유치업무는 KOTRA의 협조를 받아서 수행 가능	-한일간 외교마찰로 인하여 공적인 업무수행 제약 -코로나19의 영향까지 겹쳐서 단기간에 한일 양지역간 교류협력 사업은 수행이 어려운 상황 -후쿠오카에는 오피스 건물 부족, 사무실공간 확보 애로 -일본기업 본사가 대부분 도쿄와 오사카에 소재하고 있는 지리적 제약으로 투자유치 활동 여건이 불리함.

37

3) 신규 해외사무소 설치 후보지역의 현황

개설 순위	후보지	긍정적인 측면	고려 사항
4	상하이	-코로나19 종식 이후 중국 경제의 성장회복 기대 -제로코로나 정책 완화로 내수 소비 급성장 전망 -중국 소비계층의 다양화로 경쟁력 있는 한국제품 수요 증가 -문화레저, 유아여성용품, 반려동물, 스마트가전, 간편식품, 건강식품, 의료기기 등 고급 소비재 수요 확대 -디지털 온오프라인 융합마케팅으로 한국상품 시장 확대 -중국 정부의 투자 및 정책지원 분야에 한국제품 소싱 기회 확산 -그린모빌리티, 친환경 시장 진출기회 -직접 진출 여건이 안되는 중남 중소기업의 지자체 지원 수요 증가	-제로코로나 정책 부작용으로 소비감소, 공급망압박, 경기침체 초래 -코로나19의 방역해제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 중이며, 2023년 말경이 되어야 진정될 것으로 전망 -중국정부의 외국인 사무소 설치규제로 장기체류 비자 취득 애로 -기업의 대표사무소로 등록해야 하며 매년 등록을 갱신해야 함 -KOTRA무역관도 인원제한이 있어서 타 기관 파견자 수용 불가 -높은 물가수준으로 인하여 운영비 예산 압박 우려 -극심한 교통난으로 자가 차량 운영이 어려움 -현지인 사무소장 체제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
5	도쿄	-일본 정치경제의 중심이며, 대기업의 본사가 밀집 -중남에 기 투자한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네트워킹 등 투자유치 활동 전개가 용이함 -4차 한류에 힘입은 K-브랜드의 일본시장 진출 기회 확산	-고물가 지역이며 사무실 공간의 단독 확보가 쉽지 않음. -구인난인 일본 고용시장 하에서 현지직원 채용에 애로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투자유치 업무에 회의적 시각 초래 우려 *기타 사항은 후쿠오카와 동일

38

4) 신규 해외사무소의 주요 기능 및 업무 우선순위

국가	지역	주요 기능 및 업무 우선순위(①,②,③)
독일	프랑크푸르트	①투자유치, ②통상지원, ③교류협력
미국	LA	①통상지원, ②투자유치, ③교류협력
일본	후쿠오카	①교류협력, ②통상지원, ③투자유치
중국	상하이	①통상지원, ②교류협력, ③투자유치
일본	도쿄	①투자유치, ②통상지원, ③교류협력

39

5) 해외사무소의 법적지위

- (법적지위)
 - 외국기업의 해외사무소에 부여하는 지위는 국가마다 법규나 관행이 상이함
 - 충남경제진흥원과 같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이 설치하려는 해외사무소는 외국 기업이나 단체의 대표사무소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임
- (KOTRA과건)
 - 외국 기업의 대표사무소는 주재국 세무당국에 매년 회계신고를 하게 되며, 국내에서 과건된 한국국적의 과건 주재원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KOTRA는 주재국에서 한국의 외교공관(행정요원) 또는 정부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지자체가 과건한 주재원이 KOTRA직원과 동일한 체류비자를 획득하면 소득세 납부 불요
- (사무소 설치 규제)
 -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기업이나 단체가 해외사무소 설치를 환영
 - 국가에 따라 사무소 신규 설치를 규제=> 권위적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활동을 제약, NGO규제.
 - 중국에서는 사기업의 대표사무소 외에는 외국정부 기관의 사무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KOTRA 무역관도 인원제한을 받고 있어서 지자체의 과건 주재원 수용 불가
- (법적지위 획득)
 - 과건 주재원이 KOTRA 해외무역관 내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지자체 과건관 신분으로 활동하더라도 별도의 사무소 등록은 불필요하지만, 별도의 독립된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활동 목적상 필요하다면 설치 과정에서 주재국이 허용하는 대표사무소로서의 법적지위 획득 필요

40

6) 신규 해외사무소 권장 유형 및 후보지역 사진

국가	지역	1단계	2단계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지인 1인사무소	현지인소장, 현지직원++
미국	LA		
일본	후쿠오카	파견소장, 현지직원	파견소장, 현지직원++
중국	상하이		
일본	도쿄		



41

7) 해외사무소 소재지 결정

- 독립사무실 => 한국기업소재, 교통접근성, 보안성, 주차편의, 통신서비스 등 고려, 시내 중심

후보지역	설치제안
프랑크푸르트	- KOTRA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내에는 공간이 없어서 지자체 사무소를 수용 불가하나, 무역관이 입주한 건물은 대형 고층 빌딩임으로 여유 공간 있음. -동 건물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면 법적지위가 없어도 KOTRA 파견 충남해외사무소로 활동이 가능. * 향후 지자체들의 독일통상사무소 신규 설치 가능성이 있다면 “지자체 합동사무소” 설치 검토.
LA	-과거 충남통상사무소와 같이 KOTRA 소유건물 내의 공간을 임차하여 사무소 설치 추천.
후쿠오카	- 도시 자체에 대형 오피스 건물이 많지 않아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공간 물색 애로. - 현재 KOTRA 무역관이 이전을 추진 중임=> 신규 공간을 할애 받아서 입주하는 방안 검토 필요
상하이	- KOTRA상하이 무역관은 공간이 협소하여 타 기관 주재원 수용불가 - 과거 충남상하이사무소가 소재하던 전시장 건물에 재입주를 추천 - 타 지자체 사무소가 동일 건물 내에 입주하고 있어서 상호 교류 등 유리한 면이 있음
도쿄	-현재 광주, 경북, 산업인력공단의 주재원이 KOTRA 도쿄무역관에 파견 근무 중 -유사한 형태의 소규모 사무소 설치가 가능

42

8) 인력 운영방안

□ 사무소장 선임

- (역량) 현지어 능통, 무역실무, 투자유치실무 지식 필요
- (투자유치관) 원어민 수준 현지어 필수,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세무/노사/환경 등 실무지식
- (현지어) 기술적 사항에 대한 이해 필요. 사절단 방문 시 전문통역자 역할
- (현지인 활용) 현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선호되나, 지역 상황에 따라 국내에서 전문가 파견
- * 해외사무소 현지 업무의 국내지원을 위한 “**해외사무소지원센터**” 설치 필수

□ 현지직원 채용

- (현지인) 한국국적자 채용 시 노동허가 필요
- (한국어 구사자) 교민 2~3세, 한국에 유학한 현지인 등
- (선진국의 높은 인건비) 사무소 운영에 애로요인, 코로나19 이후 구인난 상황
- (장기근속) 현지직원 장기근속이 사무소 운영의 경쟁력, 성과거양의 기초

해외사무소지원센터의 개념도



43

제4절 해외사무소 신설의 기대 효과

□ 수출지원 업무 확대

- 1) 수출기업 해외지사 역할 대행 => 기업의 지사운영비 절감 효과
* 1개 지사 연간 운영비용 : 3~4억원
- 2) 수출프로젝트 발굴 및 진행 => 수출 부대비용 절감효과
- 3) 수출기업의 마케팅 활동 대행 => 해외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

□ 외국인투자유치 및 투자진출 지원 업무 강화

- 1) 기 투자기업의 증액 투자 유인 => 협력기업 매출 증대,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 2) 신규 투자프로젝트 발굴 => 고용창출, 협력기업 매출 증대, 수출 증대,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 3) 중남기업의 현지투자 진출 지원=> 진출기업의 비용절감 및 투자리스크 경감 효과

□ 글로벌화 선도 업무 효율적 수행 => 충청남도에 대한 대외 인지도 상승 효과

- 1) 지역 간 교류협력 지원
- 2) 산업 및 관광 홍보 활동

44

제 7장 요약 및 결론

-충청남도 내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극대화

-효율적인 해외투자유치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